

1987

<Uprising of ordinary people>

각본 김경찬
감독 장준환
제작 우정필름

이 이야기는 실화를 기초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화 내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물 소개]

<남영동 대공분실>

박 처장 (박처원 치안감)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평안남도 용강 출신.

10대 후반 월남하여 오로지 대공 수사관으로 잔뼈가 굵은 80년대 대공 수사계의 대부.

일제 악질 고문경관 노덕술의 제자이자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스승. 당시 전두환 정권의 공포정치는 안기부나 검찰보다는 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대공수사처는 안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찰 내에서도 독립적 특권을 누린 특수 기관이었다.

유 과장 (유정방 경정) : 박처장의 오른팔. 최측근 비서 겸 브레인.

박 계장 (박원백 경정) : 박처장의 왼팔. 행동대장 격인 과격파.

조 반장 (조한경 경위) : 대공수사처 5과 2계 1반의 반장.

황 경위 (황정웅 경위)

반 경사 (반금곤 경사)

강 경사 (강진규 경사)

이 경장 (이정호 경장)

<치안본부>

강 본부장 (강민창 치안총감) : 경찰 최고 책임자. 현재 직책 경찰청장.

정보국장 (***)치안정감) : 경찰 내 3인자.

<안기부>

장 부장 (장세동 안기부장)

군인 출신으로 1979년 12.12 사태. 1980년 5.17 비상계엄에 개입하여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의 실세.

<검찰>

공안부장 (검사 최환)

공안사건 담당 부장검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재공형사들이 검찰을 찾아왔을 때가 밤늦은 시간이었고 서울지검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검사가 최환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환 검사가

경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한 점과 부검의의 부검소견서를 현장에서 받아둔 점이 결정적이었다. 충청도 유력집안(장인이 검사장 출신)의 사위이기도 하다.

안 검사 (검사 안상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형사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당직이었던 서울지검 형사부 안상수 검사가 사건을 담당받게 되었다.

대검 이 과장 (검사 이흥규)

대검찰청 공안검사. 최환 공안부장의 측근 후배.

<재야 인사>

김정남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평화신문 기사를 거쳐 일찍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재야의 마당발이자 브레인. 70~80년대 주요 민주화 운동 사건을 막후에서 조직한 '비밀병기'로 불린다. 전면에서 활동하는 민주인사들을 하나로 엮어내었고, 무수한 성명서나 선언문의 실제 작성자이기도 하다.

이부영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다 1974년 33세에 동료 기자들과 함께 10월 유신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하자는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발표하였다가 이듬해 해직되었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85년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재야인사로 활약하였으며, 1986년에 5.3인천 사태 주도 혐의로 체포되어 2년을 복역하였다.

<의 사>

오연상

중앙대 용산병원 내과의. 당시 당직이었던 오연상 박사는 남영동에 불려가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대공분실에서는 담요로 시체를 싼 뒤 들것에 실어 용산병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오연상은 긴급히 병원으로 연락하여 시체를 병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병원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우기려는 시도를 미리 막았다.

황적준

국과수 집도 부검의. 경찰은 황적준 박사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16일 하루 내내 고민하다 그날 밤 잠자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의로운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정의의 편에 서서 감정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1년 뒤 그는 그 때 부검과정에서 받았던 경찰의 회유와 협박 내용을 기록한 일기장을 언론에 공개한다. 이로 인해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되었다.

박동호

한양대 병원 참관 부검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

1974년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등 각계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대거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창립을 주관하고, 이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문익환 목사와 함께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종교계 민주 운동가.

김승훈 신부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창립 멤버.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5.18 추모미사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6.10민주화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영등포 교도소>

안유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 실제로 수감 중이던 민주인사 이부영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연루된 대공 형사들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최초의 인물.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던 교도관들 중에 투옥된 민주 인사들의 성품에 호감을 느낀, 민주인사들과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교도관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한병용

실제 인물이었던 교도관 한재동과 교도관 노조를 설립하려다 파면된 전직 교도관 전병용을 섞어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실제로는 교도관 하재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박종철 사건과 관련한 정보들을 교도소 밖으로 비밀리에 반출하여 전직 교도관 전병용에게 전달하였고 전병용이 민주인사 김정남에게 전달하였다. 전병용은 이부영의 문건을 전달하고 3일 뒤 경찰에 체포되었다.

<박종철 가족>

아버지 박정기

당시 부산시 수도국 하급 공무원이었다.

어머니 정차순

독실한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박종철 열사의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러졌다.

형 박종부

당시 서울에서 오디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다.

누나 박은숙

부산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삼촌 박월길

아버지와 형이 부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대표로 부검에 참관했다.

S#1. 오프닝 시퀀스

스크린 가득.

채널을 돌리는 다이얼이 빠진, 오래된 텔레비전 한 대가 보인다.

8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모래알 화면 나타나면

카메라가 거칠게 지직거리는 브라운관 안으로 서서히 빠져들며...

1979. 12. 12. 군사 쿠데타를 시작으로

1980.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9. 1.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간첩조작 사건, 김대중 사형 서고, 국풍 81축제, 서울 올림픽 유치, 김영삼 단식, 프로야구 개막과 전두환 대통령의 시구, KAL기 격추, 아웅산 테러, 김대중 귀국,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미지들, 서울 아시안 게임 개최, 금강산담 모금운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 5.3 인천사태 등 시대 몽타주 아래로 최루탄 발사, 곤봉으로 학생들을 내려치는 전경들, 물고문 등 각종 폭력의 이미지들이 Top Credit 과 함께 어지럽게 얽힌다.

여기에 떠오르는 메인 타이틀 **[1987]**

S#2. 대강당 / 오전

TV화면 이어지며 웅장한 행진곡과 함께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사회자(off) 대통령 각하께서 입장하십니다!

객석에서 기립한 경찰들, “와아~!”하는 거대한 함성과 박수를 터뜨린다.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전두환 대통령.

cut to. 예복을 입은 박처장, 뚜벅뚜벅 걸어와서 절도있게 우향우를 한다.

대통령이 박처장의 목에 훈장을 걸어준다.

태산처럼 당당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박처장 모습 위로 타이핑 자막.

박 처장 /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치안감. 대공수사계 대부, 평안남도 용강 출신, 1950년 월남.

S#3. 호텔 연회장 / 낮

단상 중앙에 ‘경찰 -朴 치안감 창조근정훈장 수훈’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단상 옆에 사회자, 여가수, 악단이 축하연을 준비 중이다.

경찰 간부들, 무표한 표정으로 연회장 테이블에 앉아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강 본부장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강본부장의 모습 위로 타이핑 자막. **강 본부장 / 치안본부 치안총감, 경찰 총수**

뭔가 못마땅한 표정인 정보국장이 강 본부장에게 다가온다.

정보국장 본부장님, 박처장이 못 온답니다.

강본부장 ...상전이 따로 읍네. 밥이나 묵자.

정보국장이 손짓하자, 경찰들이 사회자, 여가수, 악단을 철수시킨다.

S#4. 임진각 망배단 / 낮

멀리 임진강을 가로지른 철책선이 있다. 휘날리는 눈발을 따라서 카메라가 내려오면, 예복을 입은 박처장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대공 형사들이 주변에 서서 철통같이 경비를 선다.

S#5. 정문, 남영동 대공분실 / 낮

구급차가 훔날리는 눈발을 뚫고 골목을 달린다.

cut to. 정문.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시커먼 정문이 열린다. 구급차가 정문으로 들어가며 음침한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이 보인다.
자막 : 1987년 1월 14일 오전 12시 30분.

S#6. 임진각 망배단 / 낮

박 처장, 음식이 차려진 제단에 술을 올리는데 1945년 무렵 찍은 가족사진(젊은 박처장, 부모, 여동생, 동이 등) 액자와 훈장이 있다. 몸을 일으킨 박 처장이 큰절을 올린다. 급히 달려온 유과장이 박처장의 절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유 과장의 모습 위로 타이핑 자막.
유 과장 / 대공수사처 경정.

S#7. 취조실, 남영동 대공분실 / 낮

의사 가운을 입은 오연상, 옷통이 벗겨진 채 누운 남자(박종철)의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서 심장 박동소리 등을 듣는다.
오연상의 모습 위로 타이핑 자막. 오연상 / 내과의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조 반장의 모습 위로 조 반장 /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경위

강 형사와 이 형사가 옥조 근처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인다.

오연상 (조 반장을 바라보며) 진작, 사망했습니다.
조반장 ...살리세요.
오연상 (수간호원에게) ...강심제.

수간호원이 오연상에게 주사기를 건넨다.
오연상, 주사기를 치켜들더니 꺾! 박종철의 심장에 주사기를 꽂는다.

S#8. 임진각 망배단 / 낮

재배를 하고 일어선 박 처장이 목례를 하고 돌아서자, 유 과장이 다가온다.

유과장 남영동에서... 시나이가 깨졌습니다. (남자가 죽었습니다.)

박 처장, 대답없이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대공 형사들이 박 처장을 에스코트하며 따라간다. 위풍당당.

S#9. 취조실, 남영동 대공분실 / 낮

오연상이 흑, 흑 거친 숨을 뱉으며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을 한다.
오연상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바닥엔 물이 흥건해서 오연상의 가운 밑단이 물에 젖어든다. 카메라 움직여 옥조를 향하면,
옥조 턱에 물기를 머금은 안경과 시계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cut to. 복도. 황형사가 취조실 문에 기댄 채 껌을 질경질경 씹는다.
반 형사가 비명이 울려 퍼지는 복도를 달려와서 황 형사 옆에 선다.

반 형사 처장님께서 사거리 통과하셨습니다.

후... 한숨을 쉬고 취조실로 들어가는 황 형사.

cut to. 취조실. 황 형사가 들어서면, 오연상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조 반장 쪽으로 일어선다.

오연상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조 반장. 이때 황 형사가 조반장에게 귓속말을 한다.

조 반장 ... 옮겨.

cut to. 현관. 승용차들이 줄줄이 도착하고 박 처장과 유 과장 등 대공 형사들이 차에서 내린다.

cut to. 1층 복도. 현관으로 들어온 박 처장 일행이 복도를 걸어간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오연상과 수간호원이 옆으로 비켜선다.
박처장이 오연상을 힐끗 보며 지나친다. 눈길도 매섭다.

cut to. 처장실. 소파에 앉은 박 처장. 손 안의 호두알을 굴린다.
박 처장 옆에 유 과장, 박 경정이 서 있다.
박 처장의 정면에 조 반장과 반 형사가 열중 쉬어 자세로 서 있다. 고요하다.
박 처장이 손 안에서 굴리는 호두알 소리만 드르륵, 드르륵! 울린다
똑, 똑! 노크소리가 들리고 황형사와 강형사, 이형사가 들어온다.
서열에 따라 한 줄로 서는 대공 형사들.
형사들을 노려보는 박 경정의 모습 위로 **박 계장 /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경정**

박경정(박계장) 의사, 누가 불렀어?

조 반장 접니다. 용공분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라서...

박 경정 새끼가 보고도 없이... 목격자 생겼잖아, 목격자! 어쩔거야?

박 처장, 호두알을 돌리던 손을 딱 멈춘다. 순간 정적.
일동, 긴장하며 박 처장을 주시한다.

박 처장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개지고 소란 떨거 있네? 밥들 먹으라우.

당황한 조 반장이 눈치를 살피는데, 유 과장이 나가라고 고갯짓한다.
동시에 좌향좌를 한 조 반장과 대공 형사들, 줄줄이 밖으로 나간다.
박 처장, 탁자 위에 놓인 **S#6 가족사진** 액자를 들고 책상으로 향한다.
박 처장이 책상에 앉는 사이, 유과장이 다가온다.

유 과장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박 처장 ...태우라우.

유 과장 (목례를 하며) 받들겠습니다!

유 과장과 박 경정이 처장실을 나간다.

홀로 남은 박 처장, 가족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으로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박 처장의 얼굴에 연민이 스친다.

S#10. 요정 / 저녁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안기부장과 검은 양복 4명이 들어온다.

성큼성큼 걸어오는 안기부장의 모습 위로 **장 부장 / 안기부장, 제5공화국 실세**

cut to. **안채.** 박 처장이 창문 앞에서 작은 일본식 정원을 바라본다.
미닫이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안기부장이 들어온다.

안기부장 아이고~ 처장님. (손을 내밀며) 축하드립니다.

박 처장, 곳곳이 허리를 세운 채 안기부장과 악수를 한다.

안기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도 못하고, 제가 죄송한 게 많습니다.

박 처장 없디요.

안기부장과 박 처장, 음식이 거하게 차려진 상 앞에 마주앉는다.

안기부장, 주머니에서 청와대 봉황 마크가 그려진 돈 봉투를 꺼내 건넨다.

안기부장 각하께서... 직접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 처장 (돈 봉투를 받으며) 영광입네다.

돈 봉투를 상 위에 내려놓은 박 처장, 두툼한 서류를 안기부장에게 건넨다.

안기부장이 받아서 보면, 맨 앞장에 김정남의 사진이 붙어있다.

안기부장 김정남? (서루를 들춰본다)
박 처장 인혁당, 민청학련, 보도지침 폭로, 인천사태 배후 조종자디요.
안기부장 변변한 직책도 없는 놈인데, 뭘 하시려고...

안기부장 문득 말을 멈추고 김영삼과 김정남, 김대중과 김정남이 대화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 본다.

박 처장 고거래 김영삼이 단식 성명서.
김대중이 김영삼이, 8.15 공동 선언문 작성자입네다.
안기부장 (박 처장 올려보며) 한 보따리로 엮으시겠다?
박 처장 고거이 김일성이 끄나풀로 밝혀지든, 대통령 직선제 개나발 부는 간나들,
단칼에 격멸하갓디요.
안기부장 역시...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 주인은 안바뀐다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빨리 검거해서 대학생들 개학 전에 정리합시다. (술병을 든다)
박 처장 (잔 들며) 차질없이 준비하갓습네다.

입이 귀에 걸린 안기부장이 박 처장에게 술을 따른다.
술을 한 손에 들고 술을 받는 박처장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S#11. 공안부장실, 서울지검 / 밤

공안부장이 활짝 열린 캐비닛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낡은 휴대용 위스키병에 '시바스 리갈' 양주를 따르고 있는 공안부장의 모습 위로
최 검사 / 서울지검 공안부장, 각종 시국사건 담당.

공안부장이 '시바스 리갈'을 캐비닛에 넣는데, 캐비닛 안에 압수 딱지가 붙은 양주들과 양담배들이 즐비하다.

공안부장이 휴대용 위스키병을 잠그면서 돌아서면, 검찰 수사관이 대학생 한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책사 위에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이 놓여있다.

공안부장 새끼, 신성한 소주병에 휘발유나 처넣고...
대학생 휘발유 아닌데요.
공안부장 뭐?
대학생 신나예요.

공안부장, 서류철을 집어 들어서 대학생의 머리를 연신 내려친다.

공안부장 (퍽) 잘 났다, 새까. (퍽) 잘 났다. (퍽) 잘 났어.
부모 가슴에 대못 박어서 좋냐? 좋아?

배달부(off) (들어오며) 짜장면이요!

배달부를 본 공안부장, 자신의 사무실을 가리킨다.
배달부가 공안부장의 사무실로 향한다.
공안부장, 서류철을 책상에 내던지고 사무실로 향한다.

cut to. 사무실. 소파에 앉은 공안부장, 짜장면을 비비고 휴대용 위스키병에 든 양주를 팔각엽 차잔에 따른다. 양주를 한 모금 마신 공안부장이 짜장면을 막 먹으려는데, 유과장과 박경정이 들어온다.

유 과장 영감님! 저 왔습니다.
공안부장 웬일이야? 이 시간에?
유 과장 아이구야... 공안부장님이 그딴 거 드셔야 되겠습니까?
나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공안부장 (입에 넣으려던 짜장면 면발을 내려놓으며) 그르까? 흐흐흐.

박 경정, 짜자면 그릇을 밀어놓고 서류 멍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박 경정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쇼.

의아한 표정의 공안부장이 서류를 살피다. '변사사건 지휘요청서'.
유 과장, 책상에서 도장이 찍힌 인주함을 들고 다가온다.

공안부장 간만에 공짜술 얻어먹나 했더니...
(유 과장을 보며) 안 본 사이에 많이 못 써졌어?

공안부장, 지휘 요청서 겹장을 넘긴다. '서울대.. 박종철.. 심장마비..'

공안부장 심장마비 스물두살짜리가?
유 과장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합니다.

공안부장이 서류를 넘기면, 사망진단서와 화장동의서가 있다.

공안부장, 벽시계를 쳐다본다. '7시 42분'이다.

공안부장 죽은 지 여덟시간도 안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 봤다? 못봤다?
(머뭇거리는 유 과장을 보고) 못 봤네. 못봤어.

박 경정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부친한테 동의 받았습시다.

공안부장 이 양반아, 아버지란 사람이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안보고 '화장해주세요' 했다고? 구라를 쳐도 좀 적당히 쳐! (서류를 흔들며) 이걸 누가 믿냐?

박 경정 대공 업뎃니다. 찍으시죠.

공안부장 이 새끼가 누구한테 찍으라 마라...

유 과장 아 또 왜 이러십니까... 눈 딱 감고 한번만 찍어 주십쇼.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공안부장 웬만해야지! 부검해서 사인이 나와야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할 거 아냐?

법이 그래, 법이!
유 과장 알죠, 예! 누가 모릅니까? 위에서 해 뜨기 전에 화장하합니다!
공안부장 위? 어디? 안기부? 청와대?
유 과장 영감님. 저 좀 살려주십쇼!
공안부장 널 아침에 얼른 부검해서, 오후에 화장해.
(짜장면을 한 입 먹고 유 과장을 흘려보며) 빨았잖아! 에이...

난감한 표정의 유 과장이 박 경정을 쳐다보자, 밖으로 나가는 박 경정.

S#12. 요정 앞 / 밤

박 처장이 승용차에 타는 안기부장을 배웅한다.

안기부장 (차에 타려다가) 아, 서울대생, 별 문제 없겠죠?
박 처장 관례대로 처리 중입네다.

빙긋 웃는 안기부장이 승용차에 타자, 승용차가 출발한다.
문 앞에 도열한 대공 형사들이 경례를 하고 젊은 여인들이 허리를 숙인다.
박 처장, 떠나는 승용차를 지긋이 바라본다.

S#13. 공안부장실, 서울지검 / 밤

공안부장, 전화를 받고 있다.

공안부장 알죠. 아는데... 어차피 지금, 화장터 문 닫았습니다. ...예.

전화를 끊는 공안부장이 유 과장을 노려본다.
탄청을 부리는 유 과장, 이때, 사무실 전화벨이 또 울린다.
공안부장, 두벽두벽 걸어가서 전화 코드를 확 뽑는다.
당황하는 유 과장, 푹, 푹! 노크소리가 들린다.
공안부장이 돌아보면, 여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여직원 부장님, 밖에 좀...

cut to. 조사실. 공안부장이 사무실을 나오면 차장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공안부장 웬일이십니까? 저녁 약속 있으시다고...
차장검사 청와대 전화 받고 밥이 넘어가겠냐? 너, 왜 그래?
공안부장 대공 새끼들, 검사를 개똥으로 알잖습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습니다.
차장검사 너부터 고쳐.

피식 웃는 공안부장.

차장검사 웃어? 찍어, 인마. 줄초상 난다.
공안부장 제가 알아서...
차장검사 너 이 새끼, 장인 뺨 믿고 설치는 모양인데, 전화 한통만 더 받기만 해.
도장 씨발, 내가 찍는다, 알았어?

애써 탄청 부리는 공안부장.

차장검사 대답 안해? 찍을래, 말래?
공안부장 ... 찍겠습니다.

cut to. 사무실. 공안부장이 터벅터벅 들어서는데, 유과장이 전화 코드를 꼽고 있다. 코드를 꼽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유 과장 귀...굉장히 급한 전화 같아서...

거침없이 책상으로 걸어간 공안부장이 전화기를 들어서 벽으로 내던진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나는 전화기.
찢끔하는 유 과장.
공안부장,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휘갈겨 쓰더니, 도장을 팍! 찍는다.
유 과장, 빙긋 웃으며 안도한다.
공안부장, 서류를 흘쩍리고 사무실을 나간다.
유 과장이 서류를 주워서 보면, '시신 보존 명령서'다.

공안부장 (나가며) 시신에 손만 대 봐! 공무집행방해죄로 족친다. 내가!
유 과장 (당황하며) 여..영감! 영감님!

cut to. 조사실.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은 공안부장. 접이식 철제 의자를 문고리에 받쳐서 문 열림을 막는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여직원을 뒤로 하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는 공안부장. '영감!'을 외치며 문을 두드리는 유 과장.

S#14. 사우나 / 밤

공안부장이 눈을 감고 사우나실에 앉아있는데, 대검 이 검사가 들어온다.
공안부장 옆에 앉는 대검 이검사의 모습 위로 이 검사 / 대검찰청 공안4과장

공안부장 (실눈을 뜨고) 빨리빨리 안 와? 빠져 가지고...
이 검사 하이고... 얼마나 바쁜지, 오줌싸고 손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공안부장 원래 안 씻잖아?
이 검사 으흐흐. 대충 하고 가지쇼. 간만에 형수님 찌개에 씌주 일병?
공안부장 집에 안가. 못 가.
이 검사 또 싸우셨어요?
공안부장 집 전화 때려 부수면 마누라한테 혼나요.

이 검사 어허, 누가 또 겁도 없이 우리 형님 콧털을 뽑았으까?
 공안부장 대공 새끼들이 또 사고쳤다. 대한민국 검사를 호구로 알아, 씹새끼들.
 이 검사 군바리들이 오냐오냐하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공안부장 하~ 이 쌍놈에 새끼들... 확 그냥 들이받고 사표 쓰까?
 이 검사 그래봐야 공구리에 금이나 가겠어요? 형님 머리만 깨지지.
 공안부장 그래서 말인데.. 니가 쥐약 좀 뿌려야겠다.
 이 검사 쥐약..이요?

S#15. 테니스장, 남영동 대공분실 / 아침

박 처장이 대공 간부들과 복식으로 테니스를 친다.
 랠리가 오가는데, 유 과장이 테니스장으로 들어온다.
 박 처장, 상대방이 넘긴 공을 강하게 스매싱!
 대공 간부2가 공을 받지 못하면서 게임이 끝난다.

대공간부1 나이스 샷!
 대공간부2 아파메- 공이 허벌나게 빨라블구마잉... 우리 처장님, 회춘하신거시 확실혀.
 해구신 약빨이 아쵸, 지대로 받아부렸어!

웃음소리를 들으며 걸어간 박 처장, 네트에 걸린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대공 간부2가 보온병 뚜껑에 따라준 음료를 들이킨다.

유 과장 (후다닥 달려와서) 공안부장, 종적이 묘연합니다. 근처 여관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박 처장 그 아새끼, 빨갱이네?
 유 과장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 처장, 간이 책상으로 걸어가서 전화의 수화기를 집어든다.

박 처장 (전화) 서울지검, 지검장 연결하라우.

S#16. 현관 -> 지검장실, 서울지검 / 아침

서울지검 현관 앞에 승용차가 멈추자, 경비가 경례를 하고 차문을 연다.
 지검장이 차에서 내리는데 S#13 차장검사가 다가온다.
 자막 : 서울지방검찰청 / 1987년 1월 15일 오전 6시

차장검사 지검장님, 최부장이 행방불명입니다.
 지검장 (현관으로 들어가며) 수사관들, 썩 다 풀어.

cut to. 지검장실. 지검장이 들어오다가 멈춰.
 공안부장이 소파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다.

지검장 으이그 저 화상... 최부장, 최부장!

공안부장 (일어나며) 오셨습니까... (기지개를 켜다) 아흑...

지검장 (코트를 걸며) 내가 인마, 아침부터 박처장 전화 받아야 되겠냐? 재수 옴붙었어.
(소파에 앉으며) 대충 마무리 하자.

공안부장 판 건 몰라도 부검은 꼭 해야겠습니다.

지검장 상대 봐 가면서 객기 부려.
박 처장 건드려서 살아남은 놈 못봤다.

공안부장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그 새끼들이 하자는 대로 기소 유예했다가 우리만 똥물 뒤
집어썰었습니다. 이번엔 법대로 하시죠.

지검장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사돈에 팔촌까지 털어봐.
월북자 한명쯤 나오게 돼 있어. 남영동 무서운 줄 모르고...

공안부장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합니다.

지검장 그래서 더 안되는 거야. 밖에 알려졌다면 어후... 감당 못해.

공안부장 그니까 더 깔끔하게 해야죠. 까딱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지검장 아이고... 이 꼴통...

공안부장 그거 좋네! 선배님은 그냥 꼴통이 땡강 부린다고 혀만 끌끌 차십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검장 ... 자신 있어?

공안부장 없죠.

지검장 ???

공안부장 (휴대용 위스키병 뚜껑을 열며) 주사는 있죠, 제가.
(위스키 한 모금 마신다) 크... 술은 역시 빈속이야. 허허허.

지검장,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S#17. 기자실, 대검찰청 / 아침

텅 빈 기자실에 신성호 기자가 들어온다.

‘중앙일보’ 명패가 붙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는 신성호 기자의 모습 위로

신성호 기자 / 중앙일보 사회부

S#18. 공안4과장실, 대검찰청 / 아침

S#14 사우나실의 대검 이 검사, 통화 중이다.

신성호 가지가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

자막 : 대검찰청 공안4과 / 1987년 1월 15일 오전 7시

신성호기자 과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다까?

이검사 어, 신기자.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을 한다) (전화) 오~ 얘기 잘됐네요? ... 예. ...
염려마십쇼. (전화를 끊는다)

그 사이, 여직원이 들어와서 신성호 기자 앞에 커피를 내려놓고 나간다.

이검사 (다가오며) 오늘도 일착이네?

신성호 기자 (커피를 마시고) 부지런해야 뭐라도 건지죠.
이검사 (털썩 앉으며) 후... 경찰들, 큰일났어. 서울대생이라지?
신성호 기자 예..? (아는 듯이) 그...그러게요... 법대생.. 이라던가?...
이검사 언어학과 아닌가? 박종... 뭐라던데...
신성호 기자 아, 그렇죠. 언어학과...
이검사 아까운 목숨이 참... 남영동 애들, 막 나가서 큰일이야.

커피를 마시는 신성호 기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 듯 떨린다.
신성호 기자, 떠는 것을 감추려고 두 손을 커피잔을 잡는다.

S#19. 공중전화, 거리 / 아침

신성호 기자, 출근하는 사람들을 헤치며 인도를 뚫다.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 들어간 신성호 기자, 동전을 투입하고 전화를 건다.

신성호 기자 부장!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습니다.

S#20. 정문 -> 영안실, 한양대병원 / 아침

승합차가 멈추고, 대공 형사들과 박종철 어머니, 누나가 내린다.

박종철어머니 (병원 간판을 보고) 우리 철이가 여 있나? (형사를 보며) 와?
대공 형사1 아, 그... 좀 다쳐서요. 들어가시죠.

대공 형사들, 박종철 어머니와 누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cut to. 영안실. 박종철 아버지, 낮이 나간 얼굴로 허망하게 앉아있다.
대공 형사들이 박종철 어머니와 누나를 끌고 들어온다.

박종철어머니 나라! 나를 영안실로 와 데꼬오노?
(박종철 아버지를 보고) 철이 아버지, 여서 뭐합니까? 우리 철이 어디 있는...

박종철 어머니가 제단에 놓인 안경과 시계, 위패를 발견한다. 망자의 이름은 '故 박종철'.
위패를 보고 경악하는 박종철 어머니와 누나.

cut to. 복도. 날카로운 비명과 오열이 경찰들로 가득한 복도로 터져 나온다.

S#21. 기자실, 대검찰청 / 오후

소파에 홀로 앉아 설령탕을 먹는 윤상삼 기자.
계걸스럽게 먹는 윤상삼 가지의 얼굴 위로 윤상삼 기자 / 동아일보 사회부

책상에 앉은 대여섯명의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동아일보 석간을 읽고 있다.
이때, 기자실로 들어오는 고참기자1.

고참기자1 (윤상삼 기자에게) 뭐하다 이제 처먹냐?

윤상삼 기자, 탁자 위에 놓인 동아일보를 보란 듯이 속 민다.

응? 하며 동아일보를 집어드는 고참기자1.

기자2 상삼이가 노동운동 후원회 사건, 5단 기사 썼어요. 글빨이 일취월장입니다.

고참기자1 (신문을 툭 던지고 자신의 자리로 가며) 글빨 죽여서 뭐해? 불러준대로 안 쓰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판에.

기자2 행간이란 게 있죠. 그 와중에, 아리까리, 아사모사, 긴가민가.

고참기자1 니미, 도찐개찐이다.

배달원 중앙이요!

배달원, 기자실에 신문뭉치를 던져놓고 나간다.

윤상삼 (국물을 다 마시고) 아, 잘 먹었다!

기자2 (신문 뭉치로 걸어가며) 중앙이 오늘 늦었네? 뭐 있나?

기자들이 하나 둘 신문뭉치로 걸어가는데, 따르릉! 전화 한 대가 울리더니, 순식간에 모든 책상의 전화가 시끄럽게 울린다.

순간, 혁! 하며 시선을 교환한 기자들, 일제히 중앙일보 뭉치로 달려간다.

중앙일보 사회면을 펼쳐든 기자들, 사색이 된다.

뒤늦게 달려온 윤상삼 기자가 신문을 보면, '경찰 조사받던 서울대생 숨져'.

경악하는 윤상삼 기사를 남겨두고 모든 기자들이 기자실을 뛰쳐나간다.

"씨바, 물 먹었네" 하며 신문에 얼굴을 처박는 윤상삼 기자.

S#22. 공중전화, 거리 -> 편집국, 중앙일보 / 오후

중앙일보를 손에 든 신성호 기자가 통화 중이다.

신성호기자 기사 봤습니다. 인적사항, 누가 확인했어요? 김선배-ㄴ가?

cut to. 중앙일보 편집국. 사회부장이 책상 밑에서 잔뜩 웅크린 채 통화중이다.

보안사 군인들이 집기를 발로 차고 서류들을 내던지며 난리법석.

사회부장 지금 그게 문제야? 회사에 보안사 군바리들 쳐들어와서...

(뭔가 깨지는 소리에 움찔하고) 깽판이야. 깽판!

신성호기자(off) 예...? 팩트잡아요. 다 확인하셨다고...

사회부장 팩트고 나발이고, 보도지침 어겼다고...

너 당장 여관방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마. 군바리들한테 잡혔다간 맞아죽어!

cut to. 공중전화. 기겁한 신성호 기자가 수화기를 내던지고 황급히 떠난다.

전화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수화기가 불안하게 흔들거린다.

S#23. 본부장실, 치안본부 / 오후

박 처장,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간다.

뒤를 따르는 유 과장과 박 경정, 그리고 대공 형사들.

본부장실 앞에 서 있던 경찰들, 박 처장에게 경례를 한다.

박 처장, 본부장실로 들어간다.

cut to. **본부장실.** 박 처장이 들어서면, 소파에 앉은 강본부장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 강 본부장 옆에 앉는 박 처장.

강본부장 우야노... 일이 꼬여뻗다.

박처장 나랏일 하다보문 종종 일쓰는 일이지요. 기까짓거 개지고...

정보국장 야, 박 처장! 그 까짓거 때문에 우리 모가지가 간당간당이야!

박 처장이 정보국장을 매섭게 노려보자, 정보국장이 시선을 피한다.

강본부장 이럴 때 아이다. 각하께서 신문을 패대개쳤다 카대. 빼끗하모, 다 죽는기다.
우짜든둥, 발등에 불부터 꺼야 안 되겠나.

박 처장,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강 본부장에게 건넨다.

박 처장 이대로 발표하시라요.

강 본부장이 서류를 펼쳐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정사항' 문건인데, '좌익 대학생, 심장 쇼크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내용이 정리돼있다.

cut to. 시간 경과.

강본부장 옆에 박 처장이 배석해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수첩에 메모를 한다.

자막 : 치안본부 본부장실 / 1987년 1월 15일 오후 6시.

강본부장 그리 된 겁니다. 내사 마, 갱찰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고참기자1 그럼 어찌다 죽었던 말입니까?

강본부장 아... 그기.. 조사받는 와중에... (박 처장을 쳐다본다)

박 처장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기자들, 어이가 없다는 듯 탄식을 내뿜는다.

강본부장 마,.. 심장쇼크사라고 봐야지요.

기자2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강본부장 쇼크사 맞시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입니까.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박 처장.

윤상삼 기자 중대병원이요? 의사 이름이 뭐니까?
강본부장 아... (박 처장을 힐끗 보고 아차 싶다) 하이고야...
이름이... 뭐... 뭐였더라...

기자3 확인 안된 거 아닙니까?
강본부장 그기 아이고... 오..윤상이라꼬...

기자들, 우당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으로 달려간다.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강 본부장과 박처장만 남는다.

강본부장 우야꼬... 내가 실수한 기제. 미안타...

벌떡 일어선 박 처장, 책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전화를 집어든다.

S#24. 현관 -> 당직실, 중앙대 용산병원 / 오후

현관, 빠르게 달려온 지프차가 멈춘다.
서둘러 차에서 내린 황 형사와 이 형사가 현관으로 달려간다.

cut to. **당직실.** 오연상, 책상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며 서류를 작성한다.

아나운서(라디오)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운동 후원회는 반월공단에 잠입한 좌경용공세력
을 배후 조종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문이 벌럭 열리며 황 형사와 이 형사가 들어온다.
영문도 모르고 긴장하는 오연상.

S#25. 안치실 앞, 한양대 병원 / 오후

반 형사와 강 형사 등 대공 형사들이 안치실 앞을 지킨다.
복도 코너에公安부장과 사진사, 그리고 안 검사가 서 있다.
귀찮은 표정이 역력한 안 검사의 모습 위로 **안 검사 / 서울지검 형사부**

흰 가운을 입은 국과수 황적준 박사와 한양대 박동호 박사가 걸어온다.
다가오는 황적준 박사의 모습 위로 **황적준 부검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公安부장과 마주서서 인사를 나누는 황적준, 박동호 박사.

황적준 박사 국과수 황적준입니다.
박동호 참관의 박동호입니다.

공안부장 엄중한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부검해주세요.
 (안검사에게) 검시 보고서에 손톱만한 상처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안 검사 마, 그랄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요식행위...

퍽! 공안부장이 안 검사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찬다.
악! 하며 경중거리는 안 검사.

공안부장 새파란 놈이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뒤질래?
안 검사 시. 시정하겠습니다. 아흑...

안검사가 사진사와 황적준, 박동호를 데리고 코너를 돌아간다.
후... 한숨을 쉰 공안부장, 휴대용 위스키병의 뚜껑을 여는데

대공 형사들 누구 맘대로 부검이야! / 꺼져, 새끼들아!

공안부장이 안치실 앞을 보면, 안 검사 일행이 대공 형사들에게 가로막혔다.

안 검사 지금 검찰 명열을 거부하는 거야
반 형사 우린 그런 명령, 받은 적 없수다. 어여 가.
안 검사 이 썬끼들이... 나, 검사야, 검사!!!
강 형사 (장난스럽게) 어찌라고?

낄낄거리는 대공 형사들.
얼굴이 구겨진 공안부장,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안치실 문을 막고 앉은 조반장, 심드렁한 얼굴로 자판기 커피를 마신다.

S#26. 당직실 -> 복도 -> 화장실, 중앙대 용산병원 / 오후
본부장실에 있던 기자들이 당직실에 모두 모여 복새통.

기자2 심장 쇼크사 맞습니까?
오연상 그건 제가 모르구요. 부검을 해봐야 아는 거라...
고참기자1 응급실 왔을 때, 살아 있었습니까?
오연상 응급실이 아니라 남영동에서... (문 옆에 서 있는 황 형사의 눈치를 살피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고참기자1 (짜증)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오연상 도착해서... 몸에 물기부터 닦고 동공을 보니까...
윤상삼기자 (이상하다) 물기요?

오연상이 황 형사의 눈치를 살피는데, 황 형사가 손을 허리에 올리면서 점퍼를 벗히자 보란 듯이
권총이 드러난다. 흠칫 놀라는 오연상.

오연상 형사들 말이... 사망자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받을 때 물을 되게 많이 마셨다고...

cut to. 복도. 기자들이 “쇼크사란거야, 아니란거야?” 투덜거리며 나온다.
답답한 표정의 윤상삼 기자. 당직실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cut to. 화장실. 윤상삼 기자, 뭔가 떠오른 듯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화장실 문을 약간 열어
당직실을 바라본다. 이 형사가 문 앞을 지키다. 화장실 문을 닫고 생각에 잠기는 윤상삼 기자.

S#27. 상황실, 남영동 대공분실 -> 공중전화, 한양대 병원 / 오후

대공 형사들이 김정남 검거 상황실로 바꾸느라 분주한 넓은 취조실 전경.
박처장이 뒷짐을 진 채 호두알을 굴리며 몇 발짝 앞으로 걸어가면, 중앙에 놓인 ‘김정남 간첩단
사건’ 대형 상황판에 김정남 사진을 중심으로 김일성, 김영삼, 김대중, 재일동포, 재야 인사들, 가
족, 친구 등 관련인 사진들이 즐비하게 붙어있다. 관련인 3명의 사진 위에 ‘검거’ 도장이 찍혀있
고, 대공 형사1이 다가와서 또 한명의 사진 위에 ‘검거’ 도장을 푹! 찍는다.
박 처장, 손 안의 호두알을 굴리며 김정남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cut to. 한양대병원 공중전화.公安부장이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울린다.

cut to. 상황실. 대공 형사1이 한 손에는 전화기, 한손에는 수화기를 받쳐들고 서있는데,
박처장이 수화기를 받아든다.

박 처장 (전화) 나야. ... (짜증) 뉘기야?

cut to. 한양대병원 공중전화.

公安부장 서울지검公安부장이요. 여기 한양대 병원인데, 당신 부하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 기관들끼리 진작에 정리한 거이야. 부검이래, 날래 철회하라우.

公安부장 당신, 나 알아? 어따대고 반말이야

박 처장 내래, 대공 처장이야.

公安부장 대공은 뭐, 법이고 나발이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검찰수사관들, 싹 다 불러서 깡판 한번 쳐보까?

박 처장 머이가 어드래?

公安부장 당장 형사소송법 펼쳐서! 수사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해 봐!

(끊으려다가 말고) 아, 하나 더, 웬만하면 사투리 좀 고치지?

(사투리 흉내) 김일성이네? (전화를 왕! 끊는다)

cut to. 상황실. 짜직! 박 처장이 쥐고 있던 호두알이 부서진다.

박 처장이 손바닥을 보면, 산산이 부서진 호두알 조각들이 남아있다.

S#28. 현관 -> 건물 뒤편, 한양대 병원 / 오후

박처장의 승용차가 기자들이 밀려나는 병원 현관을 지나친다.

경비를 선 경찰들이 길을 열고, 박 처장의 승용차가 건물 뒤편으로 가는데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다. 급정거하는 박 처장의 승용차.

박처장이 앞을 보면, 공안부장이 승용차 앞에 버티고 서 있다.

cut to. 건물 뒤편. 공안부장과 박 처장이 마주선다.

공안부장 (부검명령서를 펼쳐서 흔들며) 부검명령서-버니다.

박처장 사내 새끼가 종이쪼가리 뒤에 숨어서 어칸?

공안부장 법대로, 모양새 좋게 갑시다.

박처장 사냥개끼리 싸우다 사냥감 놓치믄, 주인이 가만 있간? 나랑 내기하자우.
우리 둘 중 가마솔에 들어가는 기, 누구갓어?

공안부장 내가 족보없는 똥개라, 성질이 개좃 같거든요? 닥치는대로 물어뜯는 게, 똥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멍멍.

박처장 원하는 거이 뭐이가?

공안부장 (부검명령서를 살랑살랑 흔든다)

박처장 기칸다고 달라질 거 없어야.

공안부장 저희 집안, 사돈에 팔촌 고모네 셋째 딸이... (뒷주머니에서 영어 잡지 뉴스위크를 꺼내서 보이며) 여기 기자랑 국제결혼했거든요. 피터 뭐시깡인가... 이놈의 자식이 정보 좀 달라고 아주 그냥, 들들 볶아서... 아~ 이거 팔팔 올림픽에 문제 생기면 각하께서 몹시 화내실 텐데... 어찌쪄? (빙긋 웃는다)

박처장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기래... 고저, 내주갓어.
(씩 웃으며) 고저, 퇴직 선물은 챙겨줘야디.

공안부장 ????

박처장 내래, 니 모가지 땀어야. 똥개니끼니 똥이나 먹고 살라우.

박처장이 떠나고, 공안부장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

공안부장 (너털웃음) 이런 니미... 공구리에 대가리 깨졌네. 허허허.

공안부장, 휴대용 위스키병을 꺼내 위스키를 마시려는데 다 떨어졌다.
위스키병을 흔들다가 획 집어던지고 걸어가는 공안부장.

공안부장 (차라리 후련하다) 쏘주 마시고 살지, 뭐...

공안부장,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적휘적 떠난다.

S#29. 수술실, 한양대 병원 / 밤

수술대 위에 흰 천을 덮은 박종철의 시신이 있다.

안 검사와 수술복을 입은 황적준, 박동호 박사가 서 있고, 사진사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다.

자막 : 한양대학교 병원 / 1987년 1월 15일 밤 9시 5분.

문이 열리고 박종철의 삼촌 박월길이 들어온다.

안 검사 유족 대표시죠? 성함이...

삼촌 박월길 삼촌... 박월길입니다.

안 검사 (검시 보고서에 이름을 적고) 황 박사님, 시작하십시오.

황적준박사 먼저 고인의 영면을 빌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을 한다.

황적준박사 바로.

황적준, 박동호 박사가 천을 내리자, 목덜미와 가슴에 새까맣게 멍이 든 박종철의 시신이 드러난다. 참담한 표정으로 이를 악무는 삼촌 박월길.

cut to. 수술실 앞. 대공 형사들이 인간 벽을 만들어서 철통같이 지킨다. 기자들, 카메라를 높이 치켜 올려 사진을 찍는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진다.

S#30. 복도 -> 화장실, 중앙대 용산병원 / 밤

복도, 당직실 문이 열리고 오연상이 나온다. 막아서는 이 형사.

오연상 화장실 좀...

이형사가 물러서고, 오연상이 화장실로 향한다.
오연상에게 따라붙어서 몇 발짝 걸던 이형사가 멈춰선다.
오연상, 건너편 화장실로 들어간다.

cut to. 화장실. 소변기 앞에 선 오연상.
뒤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윤상삼 기자가 바로 옆 소변기 앞에 선다.

윤상삼기자 동아일보 윤상삼 기잡니다. 고문 흔적, 못 보셨습니까?

오연상, 말없이 세면대로 가서 물을 툰다.

윤상삼기자 (따라와서) 보신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몸에 물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시신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연상 (쏟아지는 물을 잠시 보다가) 바닥에도... 물이 흥건했습니다. 가운이 젖을 정도로...
폐에서 수포음도 들렸구요.

윤상삼기자 (놀라며) 수포음이요?

S#31. 수술실 -> 현관, 한양대병원 / 밤

수술실, 박동호 박사가 박종철 시신 위에 흰 천을 덮는다.

피가 묻은 수술 장갑을 벗는 황적준 박사.

안 검사는 검시보고서를 덮고, 삼촌 박월길은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다.

cut to. 현관. 경찰들이 장벽을 치고 있다. 장벽 앞에 서있는 기자들.

황적준 박사와 삼촌 박월길이 대공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나온다.

박 경정이 황적준 박사를 승용차에 태운다.

대공 형사들이 삼촌 박월길을 데리고 승합차로 향한다.

기자들 사인이 뭐니까! / 쇼크사 맞습니까? / 한 말씀 해주세요!

삼촌 박월길 (대열을 이탈하며) 갱찰이 죽었습니다! 쇼크사 아이고...

읍, 읍... (대공 형사가 입을 틀어막아 승합차에 태운다)

아우성치는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내는 경찰들.

승용차와 승합차가 현관 앞을 떠난다.

S#32. 처장실, 남영동 대공분실 / 밤

박 처장,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유 과장과 조 반장, 강 형사가 마주앉았다.

유 과장 감사과 가서 (서류 내밀며) 이대로 진술해. 그쪽도 알아.

강 형사 (울상이다) 아, 이게... 저는 잠깐 도와주러 왔다 그런건데...

유 과장 형식적인 거라니까?! 휴가라 생각하고 감사과에서 며칠 놀아.

팬히 나다니다 기자들 눈에 띄면...

조 반장 (눈을 부릅뜨고)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감사를 받으십니까?

유 과장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까뒤집고...

조 반장 까라면 까고, 박으라면 박고, 밟으라면 밟았습니다. 제가 왜...

박 처장 한영아.

조 반장 예, 처장님...

박 처장 (조반장을 바라보며) 다녀오라우.

조 반장 ..받들겠...습니다.

S#33. 편집국, 동아일보 / 밤

회의실, 신문사 간부들이 회의를 하는데 윤상삼 기자가 열변을 토한다.

사회부에 서있는 사회부 기자들이 회의실을 주시하며 서성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간부들과 사회부장, 윤상삼 기자가 나온다.

사회부로 걸어오는 사회부장과 뛰어오는 윤상삼 기자.

윤상삼 기자가 달려와서 가방을 들고 뛰어나간다.

사회부 기자들이 윤상삼 기자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

사회부장 주목! 내일부터 고문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살살이 밝혀내!

황기자 부장... 저거는...?

부장이 시선을 돌리면, 칠판에 '보도지침 : 서울대생 사망, 절대보도금지!'

사회부장 까고 있네.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을 죽였는데 씨발, 보도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기자들 예!!!

기자들, 부리나케 수첩과 가방을 챙겨서 뛰어나간다.

S#34. 본부장실, 치안본부 / 밤.

박 경정과 대공 형사들이 황적준 박사를 호위해서 복도를 걷는다.

박 경정이 본부장실 문을 열어 황적준 박사를 들어가게 한다.

cut to. 본부장실. 황적준 박사가 들어서면, 강 본부장이 반갑게 맞는다.

강 본부장 아이고 우리 황 박사. 고생 마이했다. 거 앉아라.
(소파에 앉아서) 우에 됐노?

황적준 박사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목이 육조 턱에 눌리면서...

강 본부장 (버럭) 말조심 안하나!!!

당황하는 황적준 박사.

강 본부장 내 말, 똑또기 들으래이. 니가 고문치사라 카모, 세상이 후딱 뒤비질끼고, 우리 다 죽는기라.

황적준 박사 그게... 시신에 남은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강 본부장 화장하나카이! 다 소용없는기라. 부검소견서에 심.장.마.비.

네 글자만 써도. 그 은혜, 평생 갚을기다.

(봉투 내밀며) 여는... 국과수 아들, 회식비하고, 어어?

황적준 박사가 청와대 봉황 마크가 찍힌 봉투를 보고 흠칫 놀란다.

황적준 박사 (잠시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일어선다)

강 본부장 그개봐야 니만 죽는다카이! 내일 쇼크사로 발표할끼다! 알았나?!

묵묵히 문을 열고 나가는 황적준 박사.

깨름칙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 본부장.

S#35. 황적준 박사의 집 앞, 주택가 골목 / 밤

황적준 박사,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골목을 걷는다.
누군가 황적준 박사의 뒤로 따라붙는다.
황적준 박사,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대문 앞에 선다.

윤상삼기자(off) 박사님!

확들짝 놀란 황적준 박사가 돌아보면, 윤상삼 기자가 불쑥 다가선다.

윤상삼기자 동아일보 윤상삼 기잡니다.
황적준박사 정확한 부검결과는 이삼일 후에 나옵니다. (초인종을 누른다)
윤상삼기자 최초 검안한 의사가 물고문 증언했습니다. 고문치사 맞죠?
아들(인터폰) 누구세요?
황적준박사 나다.
아들(인터폰) 아빠다!

징~ 철컹!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황적준 박사가 대문으로 들어간다.

윤상삼기자 박사님! 저희 기자가 참관의 박동호박사도 만났습니다!

우뚝 멈춰서는 황적준 박사.

윤상삼기자 검사가 작성한 검시 보고서도 확인됐구요. 회사로서, 보신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황적준박사 조용..있습니까?
윤상삼기자 있게 만들어야죠. 꼭!

황적준 박사의 눈빛이 흔들린다.

S#36. 본부장실, 치안본부 / 오전

기자들, 소파에 앉은 강 본부장을 둘러싸고 있다.

자막 : 1987년 1월 16일 오전 9시

강본부장 오른쪽 폐의 탁구공 크기 출혈반은 폐결핵 흔적일 가능성이 높고, 목과 가슴이 피멍 또한 인공호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마... 가혹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잠정 소견입니다.

창가에 버티고 선 박 처장, 무덤덤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본다.

S#37. 화장장, 벽제 / 오전

박종철의 관이 유리문 너머에서 타고 있다.

오열하던 어머니가 쓰러지고, 박종철의 형과 누나가 부축한다.

박종철 형이 서둘러서 어머니를 업고 누나가 부축해서 사무실로 향한다.
구석에 쪼그려 앉은 박종철 아버지, 낮이 나간 표정으로 뭔가를 중얼거린다.

cut to. 주차장. 승합차 안. 삼촌 박월길이 대공 형사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삼촌 박월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cut to. 화장장 출입구. 유 과장과 대공 형사들이 뭔가를 모의하느라 속닥거린다.
똑같은 승용차 3대와 장례용 버스가 대기 중이다.
유골함을 든 박종철 형과 아버지가 대공 형사들과 함께 나온다.
전경들에게 막힌 기자들, 고개를 내밀며 유가족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윤상삼 기자, 전경들의 어깨너머를 살피려고 펄쩍펄쩍 뛰다.
대공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장례용 버스로 향하는 박종철 형과 아버지.
전경들, 갑자기 방패를 치켜올려서 기자들의 시선을 가로막는다.
대공 형사들이 버스에 타려는 박종철 형과 아버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두 번째 승용차로 끌고 간다.
시선이 막힌 기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
급히 바닥에 엎드리는 윤상삼 기자.
윤상삼 기자가 박종철 형과 아버지의 발걸음을 확인한다.
승용차 3대와 버스가 출발하고, 기자들이 일제히 신문사 차량으로 달린다.

S#38. 국도, 편도 1차선 / 오전

똑같은 승용차 3대와 장례용 버스가 국도를 달린다.
버스 뒤에 신문사 차량들이 줄지어 따라간다.

cut to. 사거리. 승용차 3대와 장례용 버스가 사거리에 멈춘다.
신문사 차량들도 잇달아 멈춘다.

cut to. 동아일보 차 안. 윤상삼 기자. 승용차와 버스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cut to. 사거리.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첫 번째 승용차는 좌회전.
두 번째 승용차는 유턴, 세 번째 승용차는 우회전, 버스는 직진한다.
신문사 차량들, 사거리 중앙에서 갈피를 못잡고 주춤거리다가 대부분 버스를 따라서 직진하고,
일부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한다.

cut to. 동아일보 차 안. 윤상삼 기자, 옆을 스치는 차를 유심히 바라본다.

윤상삼기자 유턴! 유턴!

동아일보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한다.

S#39. 농수로 / 오전

유골함을 든 박종철 형과 아버지가 얼어붙은 농수로로 비척비척 걸어간다.
급하게 달려오던 동아일보 승용차가 대공 형사들의 제지로 멈춰 선다.
윤상삼 기자와 사진기자가 급히 내리는데, 대공 형사들이 막아선다.
대공 형사들이 윤상삼 기자와 사진기자를 떠민다. 살벌하다.
윤상삼 기자가 대공 형사들 어깨 너머 박종철 아버지와 형을 바라본다.
흐느끼는 박종철 형이 얼어붙은 농수로에 유골을 뿌린다.
허망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종철 아버지.
바람을 타고 날아간 유골 한 무더기가 떠나기 싫다는 듯 얼음 위 한 곳에 모인다. 멍친 유골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박종철 아버지가 발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살얼음 위를 저벅저벅 걸어간다.
박종철 아버지, 얼음 위에 모인 유골을 쓸어 모아 다시 바람에 날린다.

박종철아버지 철아! 잘 가그래이!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업데이!!!

흐느끼는 박종철 아버지와 형.
눈시울이 붉어진 윤상삼 기자, 애써 하늘을 보며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낸다.
박종철의 유골이 스산한 바람을 타고 살얼음 위에 흩어진다.
이를 악문 윤상삼 기자, 몸을 돌려서 차에 탄다.
사진기자가 차에 타자, 동아일보 승용차가 후진한다.
대공 형사들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동아일보 승용차.

S#40. 여관방 / 오후

신성호 기자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무료하게 덩굴거리는데, 문이 쿵, 쿵!
깜짝 놀란 신성호 기자, 주춤주춤 문으로 걸어간다.

신성호기자 누..누구세요?

배달부 짬뽕이요!

가슴을 쓸어내린 신성호 기자가 문을 열자, 배달부가 짬뽕을 내려놓는다.

신성호기자 신문 사왔죠?

배달부가 배달통에서 신문을 꺼내 방바닥에 툭 던진다.

신성호기자 (신문을 집어 들어 펼치며) 에이, 중앙일보 사오라고...

신문을 보고 경악하는 신성호 기자.
동아일보 1면 기사는 '물고문 도중 질식사'.

S#41. 처장실, 남영동 대공분실 / 오후

'물고문 도중 질식사', 신문이 확 구겨진다.
박 처장, 신문을 박박 찢어발기며 일어선다.

박처장이 저벅저벅 걸어 나간다. 유과장이 따라간다.

S#42. 본부장실, 치안본부 / 오후

강 본부장, 부동자세로 전화를 받고 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

강 본부장 예! ...예!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강 본부장,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쉰다.

강 본부장 우야꼬... (인터폰을 누르고) 정보국장 오라케라!

S#43. 정문, 실길동 대공분실 / 오후

승용차 2대와 승합차 2대가 골목을 달린다.

‘신길산업’ 정문을 통과하는 자동차들.

자막 : 치안본부 신길동 분실 / 1987년 1월 19일 오후 4시

자동차들이 현관 앞에 멈추고, 승용차에서 정보국장이 내린다.

승합차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조 반장, 강 형사가 내린다.

강 형사 (두리번거리며) 어라? 여기는 신길동...

조 반장 (느낌이 이상하다) 국장님! 뭐하자는 겁니까?

정보국장 채워!

제복 입은 경찰들이 강 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조 반장,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두 명의 경찰을 순식간에 때려눕힌다.

이때, 현관에서 10여 명의 형사들이 곤봉을 들고 달려온다.

형사들이 합세하며 전세 역전. 조 반장이 곤봉을 얻어맞고 쓰러진다.

조 반장을 찍어 누르는 형사들.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눌린 조 반장,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른다.

정보국장이 조 반장에게 다가온다.

정보국장 니들, 가혹행위 치사죄로 구속됐어. 지금부터 경찰 아니고 범죄자야, 범죄자!

형사들, 기겁한 표정인 조 반장을 일으켜서 현관으로 들어간다.

S#44. 본부장실, 치안본부 / 오후

잔뜩 긴장한 강 본부장이 책상으로 다가오는 박 처장의 눈치를 살핀다.

두 손으로 책상을 짚은 박 처장이 몸을 숙 기울이며 강 본부장을 노려본다.

강 본부장 우.. 우야겠노... 청와대에서 구속하라꼬...

박처장 오뎨네까?

강 본부장 말 문한다. 니 가서 갱판칠킨데 사고남 우야노 박 처장아. 맘 단디 목으래이.
 몸통이 살라모, 꼬리를 잘라야 된다.

안광을 번뜩이는 박 처장.

cut to. 복도. 본부장실에서 나온 박 처장, 성큼성큼 걸어간다.
유 과장이 따라붙는다.

유 과장 신길동입니다.

S#45. 신길동 대공분실 / 저녁

현관,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선다.

승합차에서 내린 박 경정과 대공 형사들이 경비 경찰들에게 권총을 들이밀며 밀쳐낸다. 승용차에
서 박 처장과 유 과장이 내린다.

박 처장,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현관으로 들어간다.

cut to. 복도. 박 처장이 대공 형사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걷는다.
박 처장을 마주친 조사과 형사가 바짝 긴장한 얼굴로 거수경례를 한다.
조사과 형사를 지나친 박 처장이 취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다.

cut to. 취조실. 박 처장이 들어서면, 조 반장이 상의가 모두 벗겨진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 조
사과 형사 3명이 조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박 처장 종간나 새끼들...!

조사과 형사들이 화들짝 놀라서 박 처장에게 경례를 한다.

대공 형사들이 조사과 형사들을 밀어내고 조 반장이 묶인 끈을 풀어낸다.

정보국장 (들어오며) 동작 그만! (박 처장을 보며) 너 지금 누구 명령...

순간, 얼굴이 일그러진 박 처장이 정보국장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간다.

박 처장에게 밀린 정보국장이 복도를 지나쳐 건너편 벽에 등을 부딪친다.

박 처장, 건너편 취조실 문을 열어서 정보국장을 밀어 넣고 들어간다.

cut to. 건너편 취조실 안. 몸을 일으키는 정보국장.

정보국장 이 새끼가 명령 불복종에 상관 폭행...

퍽!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정보국장, 박 처장이 주먹을 날렸다.

박 처장이 정보국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린다.

박 처장 경찰이든 다 같은 경찰인줄 아네? 니들이 뽀찌 뜯어서 이밥에 괴깃국 먹을 때, 내래 칼 맞아가면서 빨갱이 잡았댔어. 나 아니었으면 이 나라! 김일성이한테 먹혔을끼야, 알간!!!

정보국장 너 이 새끼, 실수하는거야. 감히 각하 명령을...

퍽! 박 처장의 주먹이 정보국장의 턱에 꽂힌다.

박 처장 똑포기 새기라우.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갓어!!!

축 늘어져서 반응이 없는 정보국장.
박 처장이 정보국장을 내팽개치고 몸을 일으킨다.

cut to. **취조실**. 조 반장이 의자에 앉아있고, 조사과 형사들이 박 경정에게 ‘원산폭격’을 받고 있는데, 박 처장이 들어온다.

박 처장 비우라우.
박 경장 (조사과 형사들을 발로 차며) 나가, 새끼들아!!!

발길에 밀려서 쓰러진 조사과 형사들이 급히 몸을 일으켜 나간다.
대공 형사들까지 모두 나가자, 박 처장이 조 반장 앞에 앉는다.
박 처장,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조 반장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박 처장 ...아프내?
조 반장 ... 억울합니다.(고개를 스투룩 숙인다)
박 처장 (고함) 고개 들라우!

조 반장, 고개를 번쩍 치켜든다.

박 처장 너래, 애국자디. 고개 뺏뺏이 들고 살라우.
조 반장 가혹행위 치사죄는... 형량이 최하 10년입니다.
박 처장 몇 달만 참으라우. 과실치사로 바뀌서, 집행유예로 빼주갓어.
조 반장 딸린 식구가 다섯입니다.
박 처장 내래 다 책임질 끼야.
조 반장 ... 처장님만 믿겠습니다.
박 처장 길티. 기래야 남영동이다.

박 처장, 만족스러운 듯 얇은 미소.

S#46. 구치소, 영등포 교도소 / 밤

조용한 구치소 복도에 철창 여는 소리가 울리고, 수인복을 입은 조 반장과 강 형사가 복도를 걷

는다. 교도관들이 뒤를 따른다.

자막 : 영등포 교도소 / 1987년 1월 20일 밤 11시

cut to. 감방 안. 10여 명의 재소자들이 좁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구석 담요 안에서 꾸물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

발자국 소리에 담요를 제치고 복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부영의 얼굴.

잡지에다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지 얼른 잡지와 불펜심을 감추고 긴장하는 이부영의 모습 위로

이부영 / 동아일보 해직기자, 5.3 인천사태 주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cut to. 독방 안. 조 반장이 독방으로 들어오고 철컹! 문이 잠긴다.

조 반장, 독방을 천천히 훑어본다.

넓은 독방 안에 냉기가 가득하다. 이때, 강 형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cut to. 건너편 독방 안. 구석에 쪼그려 앉은 강 형사가 흐느낀다.

설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는 강 형사.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cut to. 독방 안. 조 반장이 우렁차게 찬송가를 부른다.

cut to. 복도. 조용한 복도에 찬송가 소리와 울음소리가 묘하게 뒤섞인다.

책상에서 잡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교도관 한병용의 모습 위로

한병용 /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교도관 노조 설립 시도로 파면 후 복직.

한병용이 철창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면, 감방 철창으로 잡지가 빠죽.

이부영 조용히 좀 시켜. 잠 다 깨겠네.

한병용교도관 접근금지입니다.

이부영 사형수야?

한병용교도관 그.. 서울대생 고문해서 죽인... (떠난다)

눈을 번쩍 뜬 이부영, 독방 쪽을 바라본다.

윤상삼기자(off) 끝나긴 뭘 끝나요?

S#47. 막걸리집 / 밤

동아일보 사회부장과 사회부 기자들이 막걸리르 마신다. 다들 취했다.

황기자 시국이 얼음장이야, 인마. 중대병원 의사. 협박에 시달리다가 잠적한 거 몰라?
더 파다간 신문사 폐간돼.

윤상삼기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청년을, 딸랑 두 명이 제압했다?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부장 다섯 명이 한 조야.

윤상삼기자 (놀라서) 부장이 그걸...? 제보 받았어요?

사회부장 당해봤으니까 알지.

동아기자1 (사회부장의 뚱뚱한 몸을 보고 웃으며) 열 명 아니구요?

키득거리는 기자들.

사회부장 이 새끼들이... 나도 젊었을 땐, 젓가락이었어.

윤상삼기자 부장! 뻔히 아는 분이 그래요? 들이 박읍시다!

사회부장 상삼아, 진실은 말이다. 너무 꾀꾀 누르다보면 언제든 터져 나오게 돼 있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퍽-! 응?

(고개 숙인 윤상삼 어깨를 두드리며) 재판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보자고.

(잔을 들며) 자! 오늘은 코가 뻐뚱어지게 마셔보자, 마시고!!!

기자들 (잔을 들며) 죽자!!!

‘씨이발!!!’ 소리치며 상을 뒤엎는 윤상삼 기자.

그 바람에 막걸리를 뒤집어쓰는 황 기자.

윤상삼 기자 그래 죽자, 죽어! 받아쓰기 하는 게 기자야? 기자냐고!!!

황 기자 이 개새끼가... (윤상삼 먹살을 잡으며) 죽을래?!! 나와, 새끼!

기자들, 서로 뒤엉키며 난장판이 되는데...

황! 미달이문을 열어젖히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2.

동아기자2 부장! 터졌어요!

사회부장 (머리에 쏟아진 안주 치우며) 터져? (기자들에게) 거 봐, 새끼들아, 내 말 맞지?

동아기자2 북한 주민 열한명 해상 탈출!!!

사회부장 (실망하며) 이런 니미... 출처는?

동아기자2 안기부요!

기자들, 우당탕 뛰쳐나간다.

윤상삼 기자와 황 기자만 뒤엉킨 채 엉거주춤, 멀뚱멀뚱, 잠시 정적.

사회부장 (소리친다) 안 튀어???!!

그제야 후다닥 뛰어나가는 윤상삼 기자와 황 기자.

사회부장, 끄... 하며 주전자에 입을 대고 막걸리를 꿀꺽꿀꺽 들이킨다.

S#48. 버스정류장, 거리 / 오전

정류장 옆 신문가판대에 진열된 신문 1면은 온통 ‘김만철 일가’ 기사다.

버스를 기다리는 40대 남자 2명이 혀를 끌끌 차며 신문을 펼쳐 보고 있다.

자막 : 1987년 2월 1일 오전 10시

40대남자1 엠병할... 종철이가 종 치니까, 만철이가 그만 치라네. 드럽게 절묘해.

40대남자2 한두 번이나? 짝소리 못하는 우리가 모지리 십빠빠여. 조까라 마이싱...

버스가 도착하고 40대 남자1, 2가 버스 앞문으로 탄다.

버스 뒷문에서 사복을 입은 교도관 한병용이 내린다.

한병용, 손에 쥔 잡지를 허벅지에 툭툭 치며 거리를 걷는다.

코너를 돌던 한병용, 갑자기 몸을 돌려 벽 뒤에 몸을 감춘다.

한병용이 고개를 슬쩍 내밀어 거리를 보면, 전경들이 길을 막았고 백골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한다.

한병용, 난처한 표정으로 손에 쥔 잡지를 바라본다.

‘탤런트 김희애’가 표지 모델인 ‘TV 가이드’다.

한병용이 잠시 망설이는데 “저놈 잡아!!!” 외침이 들린다.

화들짝 놀란 한병용이 고개를 내밀어 거리를 보면, 백골단들이 검문을 하다가 도망치는 남자를 덮친다. 쓰러진 남자를 마구잡이로 짓밟는 백골단들.

기겁한 한병용, 서둘러 되돌아간다.

S#49. 연희의 집, 동네슈퍼 / 낮

골목 삼거리에 있는 작고 낡은 동네슈퍼 전경.

한병용이 골목을 걸어오는데 한 손에는 잡지를, 한손에는 작은 종이가방을 들었다.

슈퍼로 들어가는 한병용.

cut to. 슈퍼 안. 한병용이 들어서면, 연희 엄마가 계산대에서 뜨개질한다.

한병용 나 왔어.

연희엄마 너는 퇴근하면 곧장 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녀?

그러다 뼈 삭아. 장가도 못 간 놈이... 어휴...

한병용 싸돌아 다녀야 여자도 만나고 그러지.

연희엄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니가 데이트했나? 데이트했어? 허구헌 날 헛짓거리...

(문득) 너 혹시,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니? 응?

한병용 이상한 거로 따지면 내가 쥔 이상하지. 이 나이 먹도록 누나 잔소리 듣고 사는데, 제 정신이겠수?

연희엄마 썩을 놈... 밥이나 처먹어. 찌개 끓여놔다.

한병용 (피식 웃고) 연희는?

연희엄마 퍼질러 자. 아주 벌써부터 먹고 대학생이야.

한병용이 문을 열고 슈퍼와 연결된 안채로 들어서면. 왼쪽에 있는 안방 미닫이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연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김혜수’가 표지 모델인 ‘하이틴’잡지를 얼굴에 덮은 채 자고 있다.

DJ(라디오) ... 옆집 오빠랑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원, 들어드려야죠?

불안한 청춘들을 위한 노랩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벌떡 일어난 연희가 후다닥 기어가서 카세트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누른다.
안방으로 들어가던 한병용,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춘다.
연희가 녹음 버튼을 연거푸 누르는데, 도무지 눌러지지 않는다.
신경질이 난 연희, 카세트 레코더를 확 밀쳐서 넘어뜨린다. 음악이 끊긴다.

연희 에이! 이놈의 고물...
한병용 그래 가지구 절판 나겠니? 망치 갖다 줘?
연희 외삼촌! 내가 이거 고쳐주라고 했어, 안했어?
한병용 하여간 어머니나 딸이나...
연희 뭐?
한병용 (종이가방을 내밀며) 였다! 오다가 주웠어.

연희가 종이가방을 받아 들어 내용물을 꺼내면, 미니 카세트다.

연희 (벌떡) 깧! 마이마이! (한병용 껴안으며) 역시 삼촌밖에 없쟁!
한병용 (연희 밀이내며) 야야. 다 큰놈이. (앉으며) 합격 선물이다.

신이 난 연희, 포장을 뜯어서 미니 카세트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한병용 (눈치를 살피다가) 연희야. (TV 가이드를 내밀며) 이거...
연희 (잡지를 보고 얼굴이 싸늘해지며) 또 그 아저씨 만나라고?
한병용 아니, 그.. 내가 생긴 게 이래서, 검문하다 걸리잖냐. 넌 안 잡으니까...
연희 정신 좀 차려, 쫘! 노조 만들다가 짤릴 뻔 해놓고... 잘 났어, 증말.
한병용 좋은 일 하는거야, 좋은 일, 어?

미니 카세트를 탁 내려놓고 'TV 가이드'를 확 낚아채서 뒤지는 연희.
연희가 이부영의 글씨가 가득한 부분을 펼쳐서 한병용 얼굴에 들이민다.

연희 이래도? 교도관이 죄수 심부름하고 그래두 돼?
한병용 (입맛을 다시고) 안되면 뭐, 할 수 없고.

한병용이 미니 카세트를 잡아서 천천히 끌어당기는데, 연희가 한병용의 손을 덥석! 잡는다.

연희 합격 선물이라며?
한병용 두봉이도 합격했거든?... 계장님 아들!
연희 씨... 마지막이다?
한병용 당연하지.

미니 카세트를 집어든 연희, 배시시 웃으며 버튼을 눌러본다.
연희를 바라보며 빙긋 웃는 한병용.

S#50. 버스정류장, 거리 / 오후

S#48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멈추고, 뒷문에서 잡지를 손에 든 연희가 내린다.

cut to. 거리. 전경들이 길을 막고 백골단들이 사람들의 소지품을 뒤진다.
연희가 다가오자, 백골단이 그냥 통과하라고 손짓한다.
연희, 잡지를 손에 쥐고 전경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한다.

S#51. 사찰, 서울시내 / 오후

주지 스님과 가톨릭 사제복을 입은 함세웅 신부가 마주서서 인사를 나눈다.

주지스님 오랜만입니다, 신부님.
함세웅신부 성불은 하셨습니까?
주지스님 시절이 하 수상해서,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세웅신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계나 묻을까요? 번뇌계.

낄낄 웃으며 화단으로 향하는 주지 스님과 함세웅 신부.
노무자 한명이 말라죽은 나무를 뽑아대며 화단을 정리 중이다.

주지스님 이보게 김씨!

삽으로 땅을 파던 노무자가 몸을 일으키면, S#10 사진 속 김정남이다.

주지스님 (합장 하며) 저는 그림... (떠난다)

함세웅 신부에게 다가와 성호를 그으며 인사하는 김정남의 모습 위로

김정남 / 각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도피방조혐의로 수배중

함세웅신부 무슨 일인가?
김정남 박종철군 사건. 진상규명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신다구요?
함세웅신부 내일이네.
김정남 고문 경관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는 빼주시지요.
함세웅신부 한 조가 다섯 명인 건, 당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김정남 경계가 심해져서 진상 정보를 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함세웅신부 빼낼 방법은 있고?
김정남 영등포에 수감된 부영이가 애쓰는 중인데...
 거기 보안계장이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날 양반이라, 교도관도 접근 불가합니다.
함세웅신부 때를 놓치는 것보단 대충이라도 터뜨리는 게 낫지 않겠나?
김정남 (죽은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함세웅 신부가 시선을 돌리면, 화단에 말라죽은 나무가 뽑혀있다.

김정남 제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대충 심었거든요.
(함세웅 신부를 바라보며) 고문 살인범들 소속, 계급, 이름... 명명백백한 진실이
아니면 싸우나마나 집니다.

함세웅신부 가능.. 할까?

김정남 인권 변호사들이 구속된 경관 가족들, 설득 중입니다. 우리쪽 변호사가 선임되면,
의외로 쉽게...

연희(off) 아저씨!

김정남과 함세웅 신부가 돌아보면, 연희가 다가온다.

김정남 연희구나.

연희가 'TV 가이드'를 불쑥 내민다. 김정남이 얼른 받아서 펼치는데

연희 외삼촌이, 기다리는 소식 못 들려서 죄송하대요.

김정남 (실망하고 잡지를 덮으며) 아, 그래...

연희 (함세웅 신부를 훑어보며) 불공 드릴 복장은 아니고...

응? 하는 표정의 함세웅 신부.

연희 아-, 신부님이 수괴구나?

뜨악한 표정으로 눈만 꿈벅이는 함세웅 신부.

김정남 한병용 교도관 외조카입니다.

연희 (합장하고 고개 숙이며)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인사하고 휙 돌아서서 걸어가는 연희의 뒷모습에 김정남과 함세웅 신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린다.

S#52. 일반 접견실, 영등포 교도소 / 오후

복도. 보안계장 안유가 강 형사를 데리고 걷는다.

보안계장 안유의 모습 위로 타이핑 자막. **안유 /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

cut to. 일반 접견실. 강 형사의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가 대기 중이다.

유리창 너머 문이 열리고 보안계장이 강 형사를 데리고 들어온다.

자막 : 1987년 2월 7일 오전 10시

강 형사, 가족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흐느낀다.

보안계장, 책상에 앉아 접견기록부를 펼치고 불펜을 집어든다.

강형사아내 여보...

강형사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변고니... 흑흑...

강 형사 걱정 마요, 엄마... 별 일 아니에요.. 흑흑..

강형사아버지 사람 죽여 놓고 별 일 아니라고? 내가 이놈아!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강 형사 아버지!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 흑흑...

강형사아버지 억울해? 뭐가 억울해? 말해 봐!

강 형사 전.. 다리만 잡았어요. 죽인 사람들, 따로 있다구요!

기록을 하던 보안계장, 놀란 눈으로 강 형사를 돌아본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 경정과 대공 형사들이 들어온다.

박 경정 끌어내!

대공 형사들이 강 형사를 끌고 나간다.

강 형사 저 아니예요! 아버지! 저 아니라구요, 믿어주세요!

대공 형사들이 들어와서 울부짖는 강 형사 가족들을 끌고 나간다.
유리창 너머에 박 경정과 보안계장이 남아있다.

보안계장 면회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피식 웃는 박 경정, 접견기록부를 집어 들어 대화기록을 확 뜯어낸다.
당황하는 보안계장.

박 경정 (대화기록을 찢어발기며) 한 번만 더 이딴 거 써 봐. 교도소 통째로 날려버린다.

박 경정, 갈가리 찢은 대화 기록을 훌쩍리고 나간다.
보안계장, 바닥에 나뒹구는 접견기록부와 찢어진 대화 기록을 보며 긴 한숨.

cut to. 복도. 박 경정, 면회접수 창구 밖으로 꺼낸 전화로 통화 중이다.

박 경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S#53. 박 처장의 승용차, 도로 / 오후

승용차 안, 카폰으로 보고를 받는 박 처장.
박 처장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급정거한다.
박 처장이 앞을 보면, 도로를 막고 최루탄을 쏘는 전경들 뒷모습이 보인다.

박 처장 (전화) ... 치우라우.

유턴을 해서 골목으로 향하는 박 처장의 승용차.
박 처장이 창밖을 바라본다. 박 처장의 얼굴 위로 쿠궁! 천둥소리가 울린다.

S#54. 강 형사의 집, 단독주택 / 밤

주택 앞. 장대같은 비가 쏟아진다. 빈 트럭이 서 있고 번쩍! 번개가 친다.

cut to. 주택 안. 박경정, 처마 밑에서 무덤덤한 얼굴로 담배를 피운다.
강 형사의 어머니가 대공 형사들에게 붙잡힌 채 절규한다.

강형사어머니 이런 법이 어딴어요! 이런 법이! 누구 맘대로 이사를... 흑흑...

쿠궁! 천둥소리가 울린다. 강형사 아버지는 낮이 나간 얼굴로 주저앉았고, 강형사 아내는 포대기에 짠 아이를 업은 채 울고 있다.
역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대공 형사들이 가재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cut to. 주택 앞. 대공 형사들이 트럭 적재함에 가재도구를 싣는다.
트럭 적재함에 던져진 이불 위로 장대비가 쏟아진다.

S#55. 올림피아 호텔 / 밤

비를 뚫고 달려온 승용차가 호텔 현관 앞에 멈추고, 유 과장과 박 처장이 내린다. 유 과장이 박 처장에게 우산을 받쳐준다.

cut to. 복도. 박 처장과 유 과장이 복도를 걷는다.
객실문 앞에 검은 양복 2명이 서 있다.
박 처장과 유 과장이 복도가 교차하는 곳을 지나 다가오자, 검은 양복이 문을 연다.
박 처장이 객실로 들어가고 유 과장이 남는다.

cut to. 객실. 박 처장이 들어서면 안기부장과 장관들이 탁자에 앉아서 회의 중이다.
탁자로 향하는 박 처장.

안기부장 문공부! 모든 언론사에 특별 보도지침 내려.
모든 데모가 직선제 때문이다, 개헌 싹박질에 나라 망한다.
이런 논조로 집중 보도할 것!

문공부장관 예!

안기부장 (박 처장을 힐끗 보고) 내무부는 지방 전경들 차출해서 주요 대학들 검문검색 강화
하고 최루탄 생산 풀가동 시켜! (짜증) 에이... 이런 것까지 내가... 아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안기부장이 박 처장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방으로 들어간다.
안기부장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박 처장.

cut to. 방. 안기부장이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피워 문다.
박 처장이 옆에 앉는다.

안기부장 (까칠) 교도소가 시끄럽다면서요?

박 처장 ... 구속된 요원들, 과실치사로 바꿔주시라요.

안기부장, 협탁 위 신문을 집어들어 박 처장 앞에 툭 던진다.
김만철 일가 관련 1면 기사들 위로 덮이는 사회면은 '朴군 49제 집회 비상'.

안기부장 하늘이 도와서 간신히 꺾는데, 불쏘시개를 넣자구요?

박 처장 약속을 지켜야디 말썽이 없습네다.

안기부장 조무래기도 관리 못하면서 나랏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박 처장 ...

안기부장 (담배를 대충 끄고) 재판은 무기한 연기시켜 드리죠.
(일어서 나가며) 알아서 처리하세요.

박 처장의 굳은 얼굴 위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안기부장(off) 박 처장.

박 처장이 고개를 들면, 안기부장이 문턱에 멈춰 서서 삐딱하게 돌아본다.

안기부장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나간다)

박 처장, 시선을 돌려 재떨이 속 꺼지지 않은 담뱃불을 지긋이 바라본다.

박 처장의 굳은 얼굴 위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S#56. 보안과 사무실 -> 면담실, 영등포 교도소 / 밤

장대비가 쏟아지는 영등포 교도소 전경.

빗소리가 들리는 텅 빈 사무실에 보안계장이 홀로 앉아서 뭔가를 한다.

보안계장이 갈가리 찢긴 S#52 대화 기록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고 있다.

전화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는 보안계장.

보안계장 (전화) 보안계장입니다. ...지금 가겠네.

cut to. 면담실. 보안계장이 들어서면, 기다리고 있던 한병용이 목례를 한다.
탁자 건너편에 이부영이 앉아있다.

보안계장 안녕하십니까.

이부영 오랜만입니다, 계장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 보안계장과 이부영.

보안계장 면담 신청하셨다구요. 불편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이부영 요즘 경찰들 때문에 퇴근도 제대로 못하신다면서요?
보안계장 교도 행정과 상관없는 얘깁니다. 불만사항, 말씀하시죠.
이부영 고문 경찰이 더 있다는 소문, 사실입니까?

보안계장, 시선을 돌려서 한병용을 쳐다본다.
한병용, 민망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한다.

보안계장 불만사항 없으시면 면담 종료하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쉬다 가십시오. (일어선다)
이부영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보안계장 공무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부영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보안계장 제 일이 가두고 지키는 겁니다.

보안계장이 성큼성큼 면담실을 나간다. 한숨을 쉬는 한병용.
이부영, 아쉬움에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려친다.

S#57. 상가 거리, 명동 / 오후

고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한 정미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시계를 본 정미가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리면, 20대 남자가 시계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의아한 눈빛의 정미가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자막 : 故 박종철 49제일 / 1987년 3월 3일 오후 2시

연희(off) 정미야~

정미가 돌아보면,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어설픈 화장을 한 연희가 다가온다.

정미 아쭈? 의대생들이랑 미팅한다고 때 빼고 광냈구나?
연희 어때? 괜찮지?
정미 화장이 쯤...

이때, 건너편에서 시계를 봤던 20대 남자가 거리 중앙으로 뛰어나온다.

20대남자 고문살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주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와 구호를 따라 외친다.
순식간에 50여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다.
시위대를 보고 당황하는 연희와 정미.

20대 남자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조계사에서! 고 박종철 열사 사십구제가 열리고!
고문 추방 국민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모두 모입시다! (박수치며) 박종철을!
시위대 (박수 치면서 행진한다) 살려내라! 박종철을 살려내라!

연희와 정미가 조금씩 멀어지는 시위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
썩! 비명소리 들리더니 팽! 팽! 사과탄이 터지면서 시위대가 몸을 돌려 달려온다.
경악한 연희와 정미가 도망치려는 순간,
팽! 바로 옆에서 사과탄이 터진다. 정신없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는 연희.
도망치는 시위대가 연희를 휩쓸고, 연희가 누군가에 부딪혀서 넘어진다.
청바지에 청재킷을 입은 백골단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온다.
바닥에 쓰러진 연희, 따가운 눈을 억지로 뜨며 정미의 행방을 찾는데
백골단 한 명이 연희의 뒷머리를 잡아챈다. 악! 비명을 지르는 연희.
백골단이 곤봉을 치켜드는 순간, 펑!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잘 생긴 남학생이 몸을 날려 보디책으로 백골단을 쓰러뜨린다.
급히 몸을 일으킨 잘 생긴 남학생이 연희의 손을 잡고 뛰다.
정신없이 골목을 달리는 연희와 잘 생긴 남학생.
연희와 잘 생긴 남학생을 쫓아오는 백골단 2명, 간격을 좁혀오는데...
잘 생긴 남학생이 한 손엔 연희를 안고 한 손엔 골목에 세워진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휘리릭 돌더니 발로 뺨! 리어카를 날리면 달려드는 리어카 위로 쓰러지는 백골단들.

S#58. 신발 가게, 명동 / 오후

골목에서 뛰어 나온 잘 생긴 남학생과 연희가 신발 가게 앞을 지나친다.
가게 주인이 기침을 하며 물뿌리개로 가게 앞에 물을 뿌린다.
잘 생긴 남학생과 연희가 갑자기 멈추더니 신발 가게 쪽으로 뒷걸음질 친다.
멀리 앞에서 백골단들이 학생들을 잡아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잘 생긴 남학생이 뒤를 돌아보면, 골목을 돌아 달려오는 백골단 2명.
잘 생긴 남학생이 주춤거리는 사이, 백골단들을 본 가게 주인이 물뿌리개를 내던지고 잘 생긴 남학생과 연희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cut to. **가게 안**, 주저없이 셔터를 내리는 가게 주인.
가게 주인이 셔터 끝단을 밟자, 텅! 텅! 텅! 셔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백골단(off) 셔터 올려! 셔터!
가게주인 (천연덕스럽게) 장사 안해요~!
백골단 올려, 씨발!
가게주인 장사 안해, 개시키들아~!!

백골단들이 셔터를 황! 치고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귀 기울이던 가게 주인이 셔터 끝단에 굽은 손가락을 꽂아서 잠근다.

cut to. **신발 창고**, 문고리를 붙잡고 바깥의 동태를 살피던 잘 생긴 남학생이 연희의 기침소리에

시선을 돌린다. 구석에 웅크린 연희가 얼굴에 흐른 눈물을 손으로 닦아낸다. 화장이 번진다.

연희 에이 씨... 첫 미팅인데 데모하고 지랄이야. (재채기를 한다)
잘생긴남학생 손으로 닦으면 따가워요.

콧물을 훔치던 연희가 다가온 눈을 역지로 뜨며 잘 생긴 남학생을 쳐다본다.
연희의 얼굴은 눈물 때문에 화장이 번져서 볼썽사납다.
잘 생긴 남학생이 얼굴을 가린 손수건을 내린다.
미소를 머금은 남학생은 정말 잘 생겼다!

잘생긴남학생 세수하세요.

헉!한 연희, 새초롬한 표정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다듬는다.

cut to. **가게 안.** 가게 주인이 반쯤 올린 셔터 아래로 나가서 밖을 살핀다.
잘생긴 남학생과 연희가 창고 앞에 서 있다.
연희가 잘생긴 남학생의 얼굴을 힐끗 훑어보고 시선을 떨구면, 잘 생긴 남학생의 발이 보이는데
운동화 한 짝이 사라지고 없다.

연희 저... 신발이...
잘생긴남학생 (발을 보고) 아, 괜찮아요. 양말은 있네, 뭐. (씩 웃는다)
가게 주인 그리고 나가면 잡혀 가.

가게 주인, 흰색 타이거 운동화를 꺼내 잘 생긴 남학생 발 앞에 내려놓는다.

가게 주인 이백칠십이지? 이만원짜린데, 만원만 줘.
잘생긴남학생 어찌죠? 돈이 없어서...
연희 (가게 주인에게 만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여기요.
(잘 생긴 남학생에게) 빗 값는 거예요.

어? 하는 표정의 잘 생긴 남학생.
돈을 받던 가게 주인이 연희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는다.
눈을 깜빡이며 서 있던 연희가 황급히 거울 앞으로 달려간다.
거울 속 연희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서 엉망진창.
헉! 한 연희가 창피한 듯 얼굴을 감싸 쥐며 화장실로 뛰어간다.

잘생긴남학생 (연희에게) 저기요!

연희를 부르려던 잘 생긴 남학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운동화를 신는다.

S#59. 복도 -> 특별 접견실, 영등포 교도소 / 오후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철창 앞에 멈춘다.

철창 너머에 있던 한병용이 철창을 열자, 대공 형사들이 들어온다.

철창을 닫고 책상에 앉은 한병용이 출입자 기록부를 펼치고 기록을 하려는데, 누군가 볼펜을 쓱 빼간다. 한병용이 고개를 들면, 반 형사다.

반 형사 (때리는 시늉) 확 그냥! 기록 남기지 말라니까.

반 형사가 볼펜을 획 내던지고 떠난다.

cut to. **접견실 복도.** 조 반장과 보안계장이 걸어온다.

특별 접견실 앞에 박 경정과 황 형사, 반 형사, 대공 형사1, 2가 서성인다.

황 형사와 반 형사가 조 반장에게 깡뚫하게 인사를 한다.

귀찮은 표정이 역력한 조 반장과 보안계장이 접견실로 들어간다.

cut to. **특별 접견실.** 안 검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탁자 앞에 앉아있고, 조사를 받던 이 형사가 일어서서 조 반장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조 반장이 안 검사 앞에 앉고 보안계장은 문 옆에서 지켜본다.

안 검사 형사들 진술이 엇갈 리가 확인할라꼬. 피해자 손을 뒤로 돌리가 수갑을 채웠다겠는데... 피해자 손목에 수갑 흔적이 없었거든? 수갑을 채운 기 맞나?

조 반장 어차피 과실치산데, 뭘 상관이요? 대충 합시다.

안 검사 과실치사? 나는 가혹행위치사죄야. 고문치사!

조 반장 (당황) 죄목 변경.. 안 됐습니까?

안 검사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질네. 너는 반성 안 하모, 15년 때린다카이!
진술 똑바로 몬하나!

조 반장 (절망) 씨발...

안 검사 뭐라카노? 니 방금 욕했제!

조 반장 내가 안 죽었어.

안 검사 뭐... 뭐?...

조 반장 귓구멍 막혔냐? (소리친다) 죽인 놈 따로 있다고!

안 검사 이... 이라문 안 되는데...?

우당탕! 문이 열리며 박 경정과 황 형사 등이 들어온다.

박 경정 조 반장!!!

대공 형사1, 2가 안 검사에게 달려들어서 일으키고 서류를 챙긴다.

안 검사 와 이라노?

대공형사1 영감님,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응?

안 검사를 끌고 나가는 대공 형사1, 2.
보안계장,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본다.
천천히 일어난 조 반장이 박 경정 앞으로 다가간다.

조 반장 박 처장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박 경정 (조 반장 멱살을 잡고) 뭐 이 새끼야? 뜨거운 맛 보고싶어?
조 반장 뜨거운 맛은... (황 형사 등을 바라보며) 재들이 봐야죠.
황 형사 아이, 반장님. 왜 이러십니까?...

박 경정의 손을 확 뿌리친 조 반장, 옆으로 움직이며 황 형사 등을 노려본다.

조 반장 죽인 건 니들이잖아. 아냐?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가 대답 못하고 조 반장의 시선을 피한다.
눈이 커진 보안계장이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를 훑어본다.
보안계장의 시선을 확인한 박 경정, 얼굴을 구긴다.

박 경정 이 새끼, 잡아!!!

황 형사 등이 조 반장에게 달려드는 순간,

조 반장 동작 그만!!! (황 형사 등이 멈추면) 니들 모가지, 내 허끝에 달렸어. 잘 생각해라.
(돌아서며) 면회 끝! 시마이!

조 반장, 뚜벅뚜벅 걸어서 접견실을 나간다.
보안계장, 나가려고 돌아서는데

박 경정 야, 간수! (보안계장이 돌아보면) 저 새끼도 별방에 가둬.

보안계장이 주저하는 사이, 황 형사 등이 위압적인 몸짓으로 다가선다.
보안계장, 난감한 표정이다.

S#60. 징벌방, 영등포 교도소 / 오후

교도관들이 수갑을 찬 조 반장을 끌고 복도를 걷는다.

조 반장 놔, 이 새끼들아! 놔!

교도관들이 조 반장을 징벌방으로 던져 넣는다.

0.75평 징벌방에 처박히는 조 반장.

쿵! 문을 닫고 떠나는 교도관들.

조 반장, 작은 창살에 얼굴을 대고 소리친다.

조 반장 이 개새끼들아, 나한테도 인권 있어! 변호사 불러, 변호사!
변호사 불러주라고!! 안 계장~ 변호사! 안 계장!

복도에 서있던 보안계장이 교도관들과 함께 떠난다.
조 반장의 목소리가 공명처럼 보안계장의 귓전을 때린다.

cut to. 복도. 사무실로 걸어가는 보안계장을 따라가는 한병용.

한병용 계장님, 우리가 왜 경찰 명령에 복종합니까? 예?
변호사 선임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잖아요. 매일 법! 규정! 원칙 따지시는 분이,
이래도 됩니까, 예?

굳은 얼굴의 보안계장, 묵묵히 사무실로 들어간다.
문이 쿵! 닫히자, 모자를 벗어 바닥에 내던지는 한병용.

cut to. 보안과 사무실 안. 문에 등을 기대던 보안계장, 두 눈을 질끈 감는다.

S#61. 처장실, 남영동 대공분실 / 오후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던 박 처장,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 처장이 몸을 일으킨다.
박 처장이 부속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cut to. 부속실. 박처장이 들어서면, 이부자리가 깔린 침대가 놓여있다.
박 처장이 걸어가서 침대 건너편에 멈춘다.
대형 금고가 있고 금고 위에 박 처장의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있다.
주저앉은 박 처장이 끼릭, 끼릭.. 금고 다이얼을 돌린다.
손잡이를 젖혀서 금고문을 여는 박 처장.
금고 안에 중요 서류와 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하다.

S#62. 영등포 교도소 / 밤

어둠에 잠긴 영등포 교도소 전경. 고요하다.

cut to. 징벌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조 반장이 눈을 감은 채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기도를 한다. 철컹!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cut to. 복도. 보안계장이 조 반장과 강 형사를 데리고 걷는다.

cut to. 특별 접견실. 보안계장이 조 반장과 강 형사를 데리고 접견실에 들어서면, 탁자에 박 처장이 앉아있고 바로 옆에 박 경정이 서있다. 벽 쪽에는 대공 형사들이 버티고 서있다.

자막 : 1987년 4월 2일 밤 10시.

조 반장과 강 형사가 박 처장 건너편에 앉는다.
보안계장, 문 옆에 서서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한다.
고개를 숙인 강 형사와 달리, 조 반장은 허리를 세운 채 먼곳을 응시한다.

박 처장 (조 반장을 잠시 보다가) ...살만 하네?
조 반장 몰라서 묻습니까? 조총령 명단 빼겠다고 강도짓 해서, 일본 형무소에 갇힌 적 있다 면서요?
박 처장 1년 반 있었다. 옛날 생각 나누만.
조 반장 감옥이란 데가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쫓나게 많아서 돌아버리겠습니다.
박 처장 신나는 생각만 하는 기야.

박 처장, 양복 안주머니에서 통장 2개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는다.
조 반장이 집어서 보면, 자신의 이름으로 1억원이 입금돼 있다.
강형사, 통장에 수기로 쓴 동그라미를 세며 눈이 휘둥그레.

강 형사 백만, 천만... 1억...!
조 반장 이걸로 제 인생 15년을 버리랴구요? (통장을 내던지고) 이달 안에 빼주십쇼.
박 처장 각하께서... 후계자에게 정권 물려주시고 나쁜, 특사가 있을끼야.
조 반장 내년까지 기다려라? 제가 한두번 속았습니까? 어차피 이판사판... 양심선언해서 형량이라도 줄일랍니다.
박 처장 지금이 중차대한 시기디, 애국자답게...
조 반장 (탁자를 팡! 치고) 그놈에 애국자, 애국자!

박 처장, 눈을 치켜뜨고 조 반장을 노려본다.

조 반장 여기서! 하루도 편히 자본 적 없습니다. (손을 보이며) 이 손... 이 손으로 때려잡은 사람들 비명소리가! 머릿속을 빙빙 돌아요. 우리가... 애국잡니까?
박 처장 (벌떡 일어서며) 간나 새끼!

박 처장, 탁자를 발로 뺨! 찬다.
탁자에 밀린 조 반장과 강 형사가 뒤로 넘어진다.
박 처장, 옆에 선 박 경정의 웃웃을 짓히고 권총을 뽑아든다.
박 처장, 뚜벅뚜벅 걸어가서 조 반장의 얼굴에 권총을 겨눈다.
놀란 보안계장이 달려오는데, 대공 형사들이 막아선다.

박 처장 (총구로 조 반장의 볼을 누르며) 쌍판대기에 구멍나고 싶네?
조 반장 (이를 악물고 박 처장을 노려본다) 쏘세요, 썩!
박 처장 아니다, 아니야. 니 마누라, 니 아새끼들! 임진강에 던지갓어. 월북하다 되진 거로 처리하든 그만이다. 해봤으니끼니, 알끼야. 내래, 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꼴을 똑똑기 봐야디.

조 반장 (당황한다) 처.. 처장님...
박 처장 선택하라우. 애국자네, 월북자네?
조 반장 바.. 받들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박 처장이 조 반장의 멱살을 놓고 일어선다.
드러누운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조 반장.
무릎을 꿇은 강 형사,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권총을 박 경정에게 건넨 박 처장, 문을 향해 걸어간다.
보안계장이 대공 형사들을 밀치고 불쑥 튀어나와서 박 처장 앞을 막는다.

보안계장 처장님! 교도소 규정을 준수해주십시오!

무표정한 얼굴로 보안계장을 속 쳐다보는 박 처장.

보안계장 규정에 따라 면회인은...

퍽! 대공 형사가 날린 주먹에 복부를 맞고 고꾸라지는 보안계장.
박 처장이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 선다. 박 처장이 내려다보면, 바닥에 쓰러진 보안계장이 박 처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보안계장 재소자와... 신체 접촉을 할 수 없으며...

박 경정이 눈짓하자, 대공 형사들이 보안계장의 등을 발로 짓밟는다.
몸을 웅크린 채 얻어맞는 보안계장.
박 처장,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대공 형사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보안계장을 두고 밖으로 나간다.

박 경정 애쓴다.

박 경정, 봉투를 툭 던지고 나간다.
보안계장의 눈앞에 떨어진 봉투에서 만 원권 뭉치가 빠져나왔다.
보안계장, 두 주먹을 짝 움켜쥐고 부르르 떠난다.

cut to. **현관 앞.** 박 처장이 박 경정과 대공 형사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거침없이 나온다.
박 처장이 승용차에 타고 박 경정과 대공 형사들이 승합차에 탄다. 반쯤 열린 승용차 유리창 때문에 뒷좌석에 탄 박 처장의 얼굴이 어그러져 보인다. 박 처장의 승용차와 대공 형사들의 승합차가 떠난다.

S#63. 정문 -> 학생회관 앞, 대학교 / 오전

정문 앞에 전경들이 진을 쳤다. 등고하는 학생들이 전경들 사이로 통과한다.
사복을 입은 백골단 서너 명이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중이다.

수더분한 옷차림의 연희, 가방을 수색 당하며 뚱한 표정.

옆에 야구모자를 깊이 눌러쓴 사복 경찰이 리포트 앞의 연희의 이름과 학번을 수첩에 옮겨 적는다.

연희(off) 아이 씨! 나 원래 절대 안 걸리는데.
야 내가 운동권처럼 보여?

cut to. **학생회관 앞.** 연희와 정미가 학생회관 건물에서 나온다.
연희는 어깨에 가방을 뚫고, 정미는 영어 원서를 가슴에 품었다.

정미 (위아래 훑어보며) 오늘은 웬지... 딱 운동권이네.
너 구해준 흑기사랑 잘 어울리겠다.

연희 어? 아... 그 오빠, 운동권 아니라니까?

정미 (뜨악하다) 오빠? 정신차려 이년아. 어차피 다시 만나도 니 얼굴 기억 못해. 뭐, 화장 번진 얼굴은 기억하겠네. (손가락에 침 묻혀 연희 얼굴에 가져가며) 침 발라 줄까?

연희 (피하며) 야! 하지 마!

정미 (키득거리다가 가슴에 품은 원서 올리며)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하나 하고 다녀. 절대 안 잡혀. 청순해 보이잖아.

연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여학생들이 모두 원서를 가슴에 품었다.

연희 아이씨, 왜 다들 가슴을 책으로 가리고 지랄이야.
(정미의 책을 들추며) 빈약하면 뽕을 넣든가.

정미 (빠르게 걸어가는 연희에게 눈 흘기며) 야!

몇 발짝 걷던 연희가 우뚝 멈추며 한 곳에 시선 고정.

정미가 다가와 연희의 시선이 쏘인 곳을 본다.

연희 (배시시 웃으며) 저 오빠야

근처에서 '만화사랑' 동아리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홍보판 주변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그들 중 한 명이 **S#58 잘 생긴 남학생이다.** 남학생 주위로 여학생들이 바글바글하다.

정미 어머, 어머! 얘!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

이때, 잘 생긴 남학생이 미소를 머금고 연희와 정미 쪽으로 곧장 다가온다.

정미 어떡해, 어떡해. (귓속말) 알아봤나봐.

잘생긴남학생 (연희에게) 신입생이죠?

연희 (수줍게 미소 지으며) 예.

정미 말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구면인데... (재밋다는 듯 킁킁)
잘생긴남학생 (어리둥절) 네? 어? ... 어 그런가?

활짝 웃는 잘 생긴 남학생이 시선을 돌려 연희를 바라본다.
연희, 잘 생긴 남학생을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이다.

잘생긴남학생 (연희에게 유인물을 건네며) 이따 우리 동아리에서 비디오 상영회하는데... 올래?
연희 (뜨악하다) ... 예?
잘생긴남학생 끝나고 캐리커처도 그려줄거야.
정미 (유인물을 낚아채며) 갈게요.
(잘생긴 남학생 운동화를 보며 능청스레) 어머니! 운동화 이쁘네요.
잘생긴남학생 아.. 그래? 짠 건데.. 고마워. (웃으며 떠난다) 이따 보자!

실망해서 얼굴이 일그러진 연희, 멀어지는 잘생긴 남학생을 흘겨본다.

정미 푸하하하. (손사래 치며)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연희 어깨를 두드리며) 어떡해. 짠 거래, 짠 거!

토라진 연희, 몸을 휙 돌려서 걸어가고 정미가 웃으면서 따라간다.

S#64. 강의실, 대학교 / 오후

복도. 정미가 연희의 손목을 잡아서 끌고 온다.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연희 “잠깐만!”하며 정미의 손을 뿌리치더니 가방 지퍼를 열어 뒤적이다.

cut to. 강의실. 가슴에 원서를 품은 연희,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올리며 강의실로 들어온다.
주변을 살피던 정미가 연희를 툭 치고 고갯짓으로 앞 쪽을 가리킨다. 잘 생긴 남학생이 대형 TV의 빠진 다이얼을 뺏찌로 돌리고 있다. 연희와 시선이 마주친 잘 생긴 남학생이 빙긋 웃는다.
연희, 얼른 얼굴을 돌려서 시선을 피한다.
20여 명의 신입생들이 앉아있는데, 정미와 연희가 빈 의자에 앉는다.

회장(女) 지금부터 만화사랑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비디오 상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생1 무슨 영화예요?
회장 영화 아니고 다큐예요. 외국에서 만든. 여러분들, 광주사태 알죠?
북한 간첩들이 독침 쏘고, 시민들 사주해서 데모하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여기,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연희, 심드렁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본다.
회장이 버튼을 누르자, 비디오가 시작된다.
호기심 어린 눈빛의 신입생들
TV에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흐른다.

경악하는 신입생들.

얼굴이 벌겍게 상기된 연희, 충격을 받아서 흔들리는 눈빛이다.

5.18 희생자들의 사진이 흐르자, 정미가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낀다.

애써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무는 연희. 하지만, 비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총소리와 울음소리가 가슴을 뒤흔든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가는 연희.

잘 생긴 남학생이 놀라서 연희를 쳐다본다.

S#65. 동산, 대학교 / 오후

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연희, 씩씩거리며 줄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누군가 연희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잘 생긴 남학생이다.

연희, 잘 생긴 남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매로 눈물을 훔쳐낸다.

잘 생긴 남학생 .. 나두 처음엔 끝까지 못봤어. 너무 떨려서.. 가슴이...

연희 만화 동아리에서 그런 걸 왜 보여줘요? 어찌자는 건데요?!!!

당황하는 잘 생긴 남학생.

연희 총 가진 군인들하고 싸울 거예요? 뭘루 싸울건데?

그러다 또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구요!!!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는 연희.

엉거주춤 일어난 잘 생긴 남학생, 달려가는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66. 처장실, 남영동 내공분실 / 오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춰보는 박 처장에게 보고 중인 유 과장.

유 과장 스물두 명 따서 돌리는데... 김정남 은신처를 아는 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처장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던지면, 'no. 6' 김정남 사촌 동생의 사진과 인적사항, 심문기록이 보인다.

박 처장 보따리 터질까봐, 슬렁슬렁했드랬네?!

유 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원들 사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때, 띵! 전용회선 전화벨이 울린다. 벨소리가 특이하다.

박 처장과 유 과장, 동시에 전용회선 전화를 쳐다본다.

긴장한 눈빛의 박 처장, 급히 손을 뻗어 전화를 받는다.

박 처장 대공 처장입니다.

유 과장, 침을 꿀꺽 삼키며 통화 중인 박 처장을 바라본다.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듣는 박 처장.

박 처장 ... 알겠습니다.

안기부장(off) 각하께서 김정남 보따리,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기원 거, 아시죠? (딸깍! 전화가 끊긴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박 처장, 잠시 생각에 잠긴다.

유 과장, 궁금한 눈빛으로 박 처장을 바라본다.

박 처장 (일어서며) 다 풀어주라우.

유 과장 예...? 처장님, 이럴 때일수록 빨리 공을 세워야...

박 처장 내래, 리북 살 때 슛캐를 키웠댔다. 가래, 뺨하믄 사라지는 기야.

기갈 때마다 어찌 찾았는디 알간?

영문을 모르고 눈말 끄뻑이는 유 과장.

박 처장, 소파 건너편에 있는 TV 쪽으로 걸어간다.

박 처장 (걸어가며) 발정난 암캐 몰고 산보 다녔다. 기카믄 개구멍에 박혀있던 슛캐가 침 흘리믄서 기 나완.

박 처장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미간이 구겨진 유 과장을 돌아보더니 리모콘을 들어 TV를 켜다.

브라운관 TV가 서서히 켜지며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나온다.

자막 : 1987년 4월 13일 오전 9시

전두환대통령(TV) ...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박 처장 (소파에 앉으며) 이제 아니 기어 나올 수 없을기야.

암캐들 다 풀어줘서리, 몰고 다니라우.

유 과장 받들겠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나가는 유 과장.

TV를 바라보는 박 처장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S#67. 4.13 호헌 몽타주 / 오전

동아일보 기자실.

TV를 보며 울분을 터뜨리는 기자들.

전두환대통령(TV) ...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

사를 ...

윤상삼기자 씨발!!!

퍽! 윤상삼 기자가 던진 신문뭉치가 TV 속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을 때린다.

윤상삼기자 부장! 저건 독재 연장 선언입니다!

사회부장, 씩씩거리는 윤상삼 기자의 어깨를 감싸며 한숨을 푹 쉰다.

cut to. 여관방.

수염이 덩수룩한 얼굴의 오연상, 잠이 든 다섯 살 아이를 앞에 두고 TV를 바라본다. 자지러지게 웃는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전두환대통령(TV) ...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연상 아내, 갓난아이를 달래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오연상을 쳐다본다.
오연상, 답답한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다.

cut to. 서울지검 회의실.

중앙에 앉은 지검장과 바로 옆에 앉은 차장검사.

전두환대통령(TV) ...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써...

안 검사 (옆에 앉은 선배 검사에게) 이기.. 우째 되는 겁니까?

선배검사 쫓나게 바빠지겠다. 후...

cut to. 해장국집.

공안부장과 사무장, 해장국을 먹으며 TV를 본다.

전두환대통령(TV) ... 국민 여러분께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공안부장 (손가락으로 탁자를 탁! 내려치고) 아줌마! 소주 한병!

사무장 변호사님, 한 시간 뒤에 재판이...

공안부장 (버럭) 연기하라 그래!!!

공안부장, 식당 아줌마가 가져온 소주를 뺏어들더니 이로 뚜껑을 따서 병나발을 불며 TV를 노려 본다.

cut to. 만화사랑 동아리실.

담화를 들으며 울분을 터뜨리는 회원들.

전두환대통령(라디오) ...두 가지의 국가적 대사를 완수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회장 개새끼들... 7년을 더 해먹겠다고...

가만히 앉아있던 잘 생긴 남학생이 벌떡 일어서서 탁자로 향하더니, 대자보 용지를 꺼내서 펼친다. 의아한 표정의 회장과 회원들.

회장 뭐하려고?

잘생긴남학생 뭐라도 해야죠.

회원1 (일어서 다가오며) 같이 하자.

회장과 나머지 회원들이 벌떡 일어선다.

회장 상호야! 등사기!

회원들, 등사기와 유인물 용지를 꺼내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cut to. 사찰 부엌.

뒤로 밥 짓는 스님들과 보살들 보이고 한 쪽 구석에서 주지스님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굳은 표정의 김정남.

김정남 스님, 잠시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김정남, 고무장갑을 벗고 서둘러 부엌을 나간다.

주지스님, 김정남의 뒷모습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긴 한숨을 쉰다.

cut to. 영등포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TV를 보는 한병용과 교도관 대여섯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혀를 차고 한숨을 쉰다.

책상에 앉은 보안계장,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진다.

전두환대통령(TV) ... 본인은 오늘 여러분에게 밝힌 결단에 따라 앞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위한 정치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보안계장 (버럭) 뭣들 하는거야! 교대 안해?!

화들짝 놀라 모자를 챙겨 나가는 한병용과 교도관들.

걸어 나가던 한병용이 돌아보면, 보안계장이 상기된 얼굴로 TV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S#68. 현관 앞마당, 남영동 대공분실 / 낮

스피커에서 대통령 담화가 흘러나온다.

카메라 뒤로 빠지면 박 처장이 마당 앞 단상에 올라 서있다.

그 앞에 부동자세로 줄지어 서있는 150여 명의 대공형사들.

전두환대통령(스피커) ... 새 봄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스피커소리가 사라지고 잠시 정적.

라디오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돌려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 박 처장.

박 처장 내래... 니들 총알받이가 되갓어. 아무 걱정말고서리... 청와대 먹갓다고 설치는
빨갱이들, 싸그리 격멸하라우.

대공 형사들 (함성 구호) 멸! 공! 방! 첩!

순식간에 흩어지는 대공 형사들.

부하들을 굽어보는 박 처장의 얼굴이 비장하다.

cut to. **정문.** 시커멓고 육중한 문이 열리고, 대공 형사들의 승용차와 지프차, 승합차들이 연달아
튀어나온다.

한병용교도관(off) 사천 팔백 칠십 구번!

S#69. 감방, 영등포 교도소 / 밤

수인복을 입은 미결수들이 이부자리를 펴고 있다.

감방 창살문 너머에 교도관 한병용의 얼굴.

한병용 사천팔백칠십구번, 면담 준비!

이부자리를 깔던 이부영,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병용을 쳐다본다.

cut to. **복도.** 한병용, 복도를 막은 쇠창살 문을 연다.

이부영, 문을 넘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병용 여깁니다. (바로 옆 감방문을 연다)

의아한 표정의 이부영, 감방 안으로 들어간다)

한병용이 문을 닫고 보초를 선다.

cut to. 빈 감방 안. 이부영이 들어서자, 창밖을 보던 보안계장이 돌아선다.

이부영이 다가가자, 보안계장이 접견기록부를 내민다.

이부영, 접견기록부를 받아서 펼친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진 강 형사의 면회 기록과 조 반장의 면회 기록인데,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접견 기록부를 넘기며 널라는 이부영.

보안계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안계장이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린다.

한병용이 들어오고 보안계장이 나간다.

이부영에게 다가온 한병용, 갱지와 볼펜을 내민다.

한병용 기상 시간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갱지와 볼펜을 받아드는 이부영.

한병용이 나가고 문이 닫힌다.

이부영,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접견기록부를 비춘다.

접견기록부의 내용을 갱지에 서둘러 베끼는 이부영.

S#70. 정문, 영등포 교도소 -> 거리 / 오전

한병용, 잡지를 손에 말아쥐고 교도소 정문을 나온다.

cut to. 거리. 한병용이 손에 말아 쥐 잡지로 허벅지를 툭툭 치며 걸어간다.

S#71. 버스정류장 근처 사거리 / 오전

S#48 버스정류장 근처 사거리 코너 벽에 서 있는 한병용.

한병용이 머리를 내밀어서 거리를 보면, 전경들이 길을 막고 검문 중이다.

심호흡하는 한병용, 몸을 돌려 전경들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간다.

cut to. 거리. 전경들이 길을 막고 백골단들이 검문한다.

사람에 따라 그냥 보내기도, 붙잡아서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한다.

긴장한 표정의 한병용, 말아 쥐 잡지로 허벅지를 툭툭 치며 다가온다.

백골단이 20대 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이, 한병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경들 사이로 통과하는데

백골단1 거기 스톱!

한병용 (우뚱 멈춰 서서 돌아보며) 저... 저요?

백골단1이 한병용에게 오라고 손짓한다.

한병용,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다가간다.

한병용 (교도관 신분증을 건네며) 저도 공무원입니다. 법무부..

백골단2가 한병용의 잡지를 탁! 낚아챈다.

헉! 놀라는 한병용.

백골단1 (신분증을 보며) 간수네? (신분증 사진과 얼굴 비교하며) 생긴 건 영락없이...

한병용 죄수죠? 하하...

한병용이 슬쩍 백골단2의 눈치를 보면, 백골단2가 잡지를 대충 뒤적이다.

한병용 생긴 게 이래서 이거... 맨날 거리네요? 허허허..

백골단1 (한병용을 빤히 쳐다보다가 신분증 건네며) 통과.

한병용 (신분증과 잡지를 받아들고) 수고하십쇼!

거리를 걸어가는 한병용,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S#72. 사찰, 서울시내 / 오전

이 형사, 골목에 몸을 감춘 채 사찰 정문을 주시한다.

S#66 서류의 사진 속 김정남 사촌동생이 정문에서 나오더니, 주변을 살피고 반대방향으로 걸어간다. 김정남 사촌동생을 주시하던 이형사, 지프차 엔진음을 듣고 몸을 돌린다. 골목을 달려온 지프차가 멈추고, 이 형사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간다.

조수석에 황 형사, 운전석에 반 형사가 있다.

이 형사 암개 6호가 방금 절에 들렀다 나왔습니다.

황 형사 절? 김정남 집안은 천주교잖아?

이 형사 그게 이상해서...

황 형사 들어가서 확인해.

이 형사, 귀에 무선기 이어폰을 꽂으며 골목을 나간다.

황 형사 (반 형사에게) 후문 말아.

반 형사 보고부터 하시죠. 우리끼리 덮치다가...

황 형사 죽 썰서 개 줄래? 보따리 터진 거, 반까이 하자.

깨름칙한 표정의 반 형사, 어쩔 수 없다는 듯 지프차에서 내린다.

cut to. 근처 좁은 골목.

한병용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어간다.

cut to. 사찰 경내.

이 형사가 사람들을 살피며 대웅전으로 향한다.

노무자로 위장한 김정남이 담벼락 옆에서 부서진 기왓장을 갈고 있다.

김정남을 무심히 지나친 이 형사가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며 안을 살핀다.

불상 앞에 앉은 승려 몇 명이 불경을 읊조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실망한 표정의 이 형사가 돌아서다가 손수레를 밀고 대웅전 뒤편으로 향하는 김정남과 눈이 마주친다. 얼른 고개를 돌리는 이형사의 눈이 휘둥그레.

cut to. 지프차 안.

운전석에 앉은 황 형사가 껌을 질경질경 씹는데 치직~!

무전(이형사) 그림자 발견!

cut to. 사찰 경내.

대웅전 뒤로 향하는 김정남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이 형사 (무전) 그림자 별건! 진입 요망!

cut to. 지프차 안.

황 형사가 창밖으로 껌을 튀! 뱉고 시동을 건다.

지프차가 용수철이 튕기듯 급출발한다.

cut to. 근처 골목.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는 한병용.

cut to. 사찰 경내.

정문을 통과한 지프차가 곧장 달려와서 대웅전 앞에 급정거한다. 황 형사가 내리자, 이 형사가 튀어나와 대웅전 오른쪽을 가리킨다.

이 형사 뒤요! 노가다 복장!

이 형사, 몸을 돌려 대웅전 왼쪽을 돌아 뒤편을 향해 달려간다.

황 형사, 대웅전 오른쪽으로 달려간다.

cut to. 정문 근처 골목.

한병용, 사찰 정문이 보이자 걷는 속도를 높인다.

cut to. 대웅전 뒤편.

이 형사가 달려와서 보면, 담벼락 앞에 손수레가 놓여있다. 이 형사가 당황해서 주변을 살피는 사이, 황 형사가 달려온다.

이 형사 분명 이쪽으로...

황 형사가 손수레를 보면, 누군가 손수레를 밟고 담을 넘은 것 같다.

황 형사 넘어 가!

이 형사, 손수레를 밟고 담을 넘는다.
몸을 돌려 대웅전 건물 쪽을 살피는 황 형사.
대웅전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

cut to. 대웅전.

황 형사가 쪽문으로 들어서면, 승려들이 대웅전을 나간다.
황 형사가 승려들 뒷모습을 살핀다. 노가다 복장은 없고 전부 승려들이다.
대웅전 구석구석을 뒤지는 황 형사.

cut to. 사찰 경내.

한병용, 잡지를 손에 쥔 채 정문으로 들어온다.
한병용이 대웅전 앞을 보면, 승려들이 숙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승려들이 대웅전 앞을 빠져나
가면서 무전기를 손에 들고 대웅전을 나오는 황 형사가 보인다! 기겁해서 되돌아 나가는 한병용.

황 형사 (무전) 그림자 위치보고!
이 형사(무전)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울화통이 터진 황 형사, 대웅전 앞 계단을 발로 차며 분풀이한다.
이때, 숙소로 향하는 승려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승려들 틈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승복을 입은
김정남이 있다. 승려인 척 걸어가는 김정남의 승복 아래로 가발이 떨어진다.
맨 뒤에서 걸어가던 승려가 가발을 열린 주워 옷 속에 감춘다.

cut to. 정문.

부리나케 정문을 나온 한병용, 종종걸음으로 도망친다.
한병용이 골목 사거리를 통과하자마자, 왼쪽 골목에서 반 형사가 나온다.
정문으로 향하던 반 형사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를 돌아본다.
골목을 빠르게 걸어가는 한병용의 뒷모습이 보인다.
반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문으로 달려간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한병용,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간다.

S#73. 상황실, 남영동 대공본실 / 저녁

S#27 상황판 옆에 또다른 상황판이 있다. 김정남 관련인 22명의 사진 밑에 날짜별로 동선을 기
록한 두툼한 서류가 걸려있다. 상황판을 훑어가던 카메라가 벽 쪽으로 향하면, 황형사 반형사 이
형사가 주눅 든 채 서 있고, 박 경정이 씩씩거린다. 문이 열리고, 박 처장이 들어온다.

박 경정 죄송합니다...

퍽! 박 처장이 박 경정의 배를 걷어찬다.
바닥에 널브러진 박 경정, 오뎅이처럼 일어서서 박 처장 앞에 선다.
다시 퍽! 박 처장의 발길질에 또 쓰러지는 박 경정.
고개 숙인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황형사와 반형사, 이형사.
반 형사가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번쩍 뜬다.
박 경정이 다시 일어서서 박 처장 앞에 서는 순간.

반 형사(off) 처장님!

박 처장이 쓱 돌아보면, 반형사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S#74. 연희의 집, 동네슈퍼 / 밤

터벅터벅 걸어온 연희가 슈퍼로 들어간다.

cut to. **슈퍼 안.** 연희가 들어서면 한병용이 계산대에 앉아서 통화 중이다.

한병용 (전화) 다행입니다. ... 예, 어떻게든 전달해야죠.
연희 (안채로 향하며) 엄마는?
한병용 (연희에게) 계모임. (전화) 예? 아, 거기요. 알죠.

시큰둥한 표정의 여늬, 안채로 들어가며 문을 탁! 닫는다.

cut to. 시간 경과.

연희의 방. 미니 카세트가 플레이 중이다.
헤드폰을 낀 연희,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쓴다.

cut to. **슈퍼 안.** 전화 중인 한병용.

한병용 (전화) 남학생은 위험해서... (실망) 할 수 없지, 뭐...

cut to. **연희의 방.** 일기장을 덮은 연희가 서랍을 열어서 일기장을 넣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연희는 헤드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한병용이 어깨를 툭 친다.

연희 (헤드폰을 벗고) 왜?
한병용 연희야... 글...

연희가 망설이는 한병용을 보는데, 오른손에 잡지를 말아쥐고 있다.

연희 (고개를 획 돌리며) 안 해.
한병용 중요한거야. 꼭, 알려야 돼.

연희 알려서 뭐할건데, 외삼촌만 다쳐.
한병용 아냐, 사람들이 도와줄거야.
연희 (눈을 치켜뜨며) 우리 아빠 왜 돌아가셨는지 몰라? 밀린 월급 받자고 부추긴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
한병용 매형은! 당연히 해야 될 일, 한거야. 애초에 월급 안 준 사장을 탓해야지!
연희 아빠가 사장 때문에 못 먹는 술, 드셨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잖아!
한병용 그건 그냥, 교통사고였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고!
연희 웃기지 마. 그 사람들이 도망만 안갔어도! 아빠 안 돌아가셨어.

연희, 헤드폰과 미니 카세트를 한병용 쪽으로 확 밀어낸다.

연희 이딴 거 필요 없어.

벌떡 일어선 연희, 방을 나간다.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병용.

cut to. 시간경과.

슈퍼 안. 남자아이가 과자 한 봉지와 불량식품 몇 개를 골라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다.

연희 (과자 들추고 뒤적이더니) 삼백오십 원.

남자아이가 연희에게 동전들을 건네고 과자들을 집어든다.

연희가 돈을 세는 사이, 슈퍼를 나가는 남자아이와 연희 엄마가 교차한다.

연희엄마 외삼촌은?

연희 있겠지.

연희엄마 (의아한 표정으로 연희 보다가) 병용아! 병용아!

안채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한병용이 나온다.

연희엄마 밖에 물건 좀 들여놓자. 비 올거 같애.

한병용, 연희의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신는다.

연희, 시큰둥한 표정으로 탄창을 부린다.

연희엄마 (한병용과 연희를 번갈아 보고) 니들, 싸웠니?

한병용 싸우긴... (슈퍼 밖으로 나간다)

연희엄마 (연희에게) 너는 애가... 외삼촌이 아빠 대신이라고 몇 번을 말해?
기집애가 꼬박꼬박 말대꾸 하니까 싸우지!

연희 (혼잣말) 잘났어, 증말...

이때, 우당탕! 소리와 함께 한병용이 슈퍼 안 진열대로 넘어진다.
깜짝 놀란 연희와 연희 엄마가 보면, 황 형사와 반 형사가 들어온다.
황 형사와 반 형사가 쓰러진 한병용을 마구 짓밟는다.

한병용 악! 왜.. 왜 이러... 으!

연희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데, 반 형사가 가로막는다.
황 형사가 한병용의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운다.

한병용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황 형사 아가리 닥쳐라!

지프차가 슈퍼 앞에 급정거한다.
“병용아! 외삼촌!”을 외치며 반 형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연희엄마와 연희.
지프차에서 내린 이 형사가 달려와 반 형사와 함께 연희엄마와 연희를 밀어낸다.
황 형사가 한병용을 지프차로 데려가는데, 한병용이 멈춰 선다.

한병용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짓고) 괜찮아. ... 괜찮아, 누나....

황 형사가 한병용을 지프차에 태우자, 반 형사와 이 형사가 차로 향한다.
절망한 연희 엄마가 털썩 주저앉고 연희가 엄마를 부축한다.
후드득! 지프차 위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지프차가 떠나고, 슈퍼 앞에 진열된 물건 위로 장대비가 쏟아진다.

S#75. 상황실(취조실), 남영동 대공분실 / 밤

복도. 황 형사가 앞장서고, 반 형사와 이 형사가 검은 두건을 머리에 씌운 한병용을 데리고 걷는다. 아악! 단발마 비명이 들리자, 흠칫 놀라는 한병용.

cut to. 어두운 방문이 열리고, 황 형사와 반 형사, 이 형사가 한병용을 데리고 들어와서 중앙에 무릎을 꿇린다. 두건을 쓴 한병용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프레임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박 처장의 얼굴.

박 처장 교도소에 서리... 우리 요원들, 본 적 있네?

두건을 쓴 한병용, 흠칫 놀라며 숨을 고르더니

한병용 지나가는 거 몇 번... (고개 숙이며) 봤습니다...

박 처장, 두건을 쓴 한병용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한다.
마치 두건 속 한병용과 눈을 마주치려는 것처럼 노력하는 박 처장.

박 처장 (낮은 목소리) 너래, ... 김정남이 알간?

한병용 모..모릅니다.

박 처장 김정남이가 말이다, 김일성이한테 공작금 받아서리, 야당 것들하고 나눠 썼됐구나? 길티?

한병용 모..모릅니다! 그런 사람!

한병용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박처장, 갑자기 두건을 확 벗겨낸다.

눈이 부신지 눈을 껌벅이던 한병용이 계슴츠레 눈을 뜨면, 눈앞에 박 처장이 보이고 그 너머 벽면 가득히 '김정남 간첩단 사건' 아래 김정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도가 보인다.

눈을 동그랗게 뜬 한병용, 당황한 눈빛으로 조직도를 이리저리 훑어본다.

박 처장 (씩 웃고) 모른다문서, 와 놀라는기야?

한병용 (박 처장 올려보며 고개만 절레절레) ...

박 처장 (차갑게) 돌리라우.

cut to. 복도. 반 형사와 이 형사가 한병용을 끌고 비명소리 가득한 복도를 걸어간다.

한병용을 509호실 앞에 멈춰 세우더니 문을 열고 문 양쪽에 서는 반 형사와 이 형사.

한병용,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보면, 퍽! 날아드는 황 형사의 워커발.

외마디 비명을 지른 한병용이 문에 부딪혀 날아가더니 취조실 바닥에 나뒹굴고, "골인!" 외치며 들어오는 황 형사와 반 형사, 이 형사.

황 형사 야 간수! 여기 재수 옴 붙은 방이거든?

(시계 풀며) 언능 끝내고 나가자~ 뉘지기 전에?!

철컹! 509호의 문이 닫힌다.

S#76. 연희의 집, 동네슈퍼 / 해질 무렵

슈퍼 안. 연희 엄마가 안채에서 나오고 연희가 뒤따라 나온다.

연희 경찰서 또 가서 뭐해? 대답도 안해준다며!

연희엄마 어떻게든 찾아야지. 가게 보고 있어.

연희 (따라가며) 어딴는지 알면, 외삼촌 풀어준대?

연희엄마 (확 돌아서서 버럭) 뭐든 해야지!!! 너 걱정도 안되니? 병용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가며) 모진 년.

연희 (당황해서) 엄.. 엄마...

슈퍼를 나가는 엄마를 차마 붙잡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연희.

배달부(off) 석간이요!

cut to. 슈퍼 앞. 자전거를 탄 신문배달부가 신문 한 뭉치를 평상에 내려놓고 떠난다.
계산대에 앉아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이마이를 만지작거리던 연희, 눈물 훔치며 헤드폰을 벗고 평상 쪽으로 다가가 신문 뭉치를 집어 든다.
신문 1면 기사는 ‘여야 4.13조치 집중공방 긴장 예고’.
멀리서 평, 퍼병...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신문가판대에 신문을 정리하는 연희, 등위로 그림자가 드리운다. 인기척을 느낀 연희가 돌아보면, 하얀 타이거 운동화가 보인다.
연희가 일어서면, 잘 생긴 남학생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잘생긴남학생 정미가 가르쳐 줘서...

cut to. 시간경과.
슈퍼 앞 평상에 나란히 앉은 연희와 잘생긴 남학생.
둘 다 같은 종류의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연희 왜 왔어요?
잘생긴남학생 (장난스럽게) 너, 포섭하러 왔지.
(활짝 웃으며) 우리 동아리 들어와. 정미도 가입했어.

뜨악한 표정의 연희.
빙긋 웃는 잘생긴 남학생, 가방에서 유인물을 꺼내 건넨다.

잘생긴남학생 우리 동아리에서 만든거야.

연희가 마지못해 유인물을 받아서 보면, ‘호헌철폐와 고문정권 타도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글씨가 빼곡하다.

잘생긴남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거부하고 시내에서 모이기로 했거든? 같이 가자.
연희 가서 뭐하는데요?

이때, 평, 평! 빠바바방! 시내 쪽에서 다연발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잘 생긴 남학생, 대답없이 멧쩍은 웃음.

연희 (짜늘하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잘생긴남학생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연희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요, 정말?! 가족들 생각은 안해요?!

버럭 화를 내는 연희에게 아무 말 못하고 시선을 내리는 잘 생긴 남학생.
머쓱해진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유인물을 뒤집어본다.
뒷면엔 노래 ‘그날이 오면’ 악보가 그려져 있다.

연희 그날 같은 건 안 와요. 꿈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잘생긴남학생 ..그래,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돼... 마음이 너무 아파.

연희 (벌떡 일어서며) 가세요.

잘생긴남학생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 갈게.

골목으로 걸어가는 잘생긴 남학생.

연희가 평상에 유인물을 툭 던지고 슈퍼 안을 들어가는데

잘생긴남학생(off) 연희야~!

멈춰 선 연희가 보면, 잘생긴 남학생이 뒷걸음질로 걸어간다.

잘생긴남학생 마음 바뀌면 전화해!

활짝 웃는 잘 생긴 남학생,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뛰어간다.

어이없는 듯 입을 삐죽 내민 연희, 슈퍼 안으로 들어간다.

cut to. 슈퍼 안. 계산대에 털썩 주저앉는 연희.

심란한 표정인 연희의 얼굴 위로 봄바람이 스친다.

연희가 평상을 보면, 유인물이 바람에 날려서 넘어가고, 유인물 사이에 낀 새하얀 종이가 황혼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난다.

cut to. 슈퍼 앞. 연희가 새하얀 종이를 집어 들어 뒤집으면 연희의 캐리커처인데, 화장이 번져 올상인 얼굴이다. 구석에는 잘 생긴 남학생을 닮은 장난스런 캐릭터가 'T. 733-5221' 전화번호가 적인 피켓을 들었다. 그림을 보며 피식 웃는 연희.

cut to. 연희의 방. 연희가 그림을 들고 들어와 서랍을 열다가 멈칫.

서랍 안에 한병용의 잡지가 들어있고, 잡지 위에 쪽지가 놓여있다.

쪽지를 집어 들어서 읽는 연희. 이때,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cut to. 슈퍼 안. 안채에서 나온 연희가 계산대 위의 전화를 집어든다.

연희 여보세요?

연희엄마(off) 연희야... 흑흑...

연희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연희엄마(off) 병용이가... 남영동에 끌려갔대. 서울대생 죽인 데... 흑흑...

소스라치게 놀라는 연희의 얼굴.

S#77. 처장실, 남영동 대공분실 / 아침

1호선 전철이 요란하게 지나가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아침 전경.

방금 세수를 했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박 처장. 스탠드 옷걸이에 수건을 걸고 국방색 점퍼를

집어 걸친다. 옆에 유 과장과 박 경정이 아침 보고를 하고 있다. 거울이 있는 창가로 걸어가며 보고를 듣는 박 처장.

박 경정 일곱바퀴 돌렸는데도... 입을 안엽니다.

박 처장 고저, 썩어지게 버티는구나. 신상 자료 개꼬 오라우.

유 과장이 서류철을 들추며 박 처장에게 다가온다.

창가에 선 박 처장, 점퍼의 지퍼를 올리며 창밖을 바라본다.

유 과장이 한병용의 자료를 박 처장에게 내미는데

박 처장 (창밖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저거이 뭐이네?

S#78. 남영동 대공분실 앞 골목 / 아침

연희, 진이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골목을 걷는다.

검거자가족1(off) 창진아 엄마 왔다! 창진아!

연희와 연희 엄마가 앞을 보면, 방패를 든 전경들이 굳게 닫힌 남영동 대공분실 정문 앞을 막았고 검거자 가족들이 방패를 두드리며 절규한다.

검거자가족2 우리 아들 고문하지 마! 고문하지 말라고! 흑흑흑...

검거자가족3 진수야~ 진수야!

검거자가족4 비켜, 이눔들아! 선희야! 애비다!

연희와 연희엄마가 다가가면, 방패를 몸으로 들이받는 아저씨, 목 놓아 소리치는 아줌마, 전경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할머니 등.

전경 앞에 선 연희가 고개 들어 음침한 대공분실 건물을 바라보는데

연희엄마 병용아! 누나 왔다~! 병용아~

전경의 방패를 붙잡고 울부짖는 연희엄마.

목 놓아 소리치며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검거자 가족들.

연희엄마가 전경의 방패에 밀려서 뒤로 넘어진다.

“엄마!”하며 달려간 연희,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킨다.

연희가 방패를 민 전경 앞에 바짝 다가선다.

연희 당신 뭐야? 깡패야? 깡패냐고!!!

이때, ‘끼이익!’ 소리와 함께 경찰 승합차 3대가 연달아 도착하고 백골단들이 차에서 내려 검거자 가족들에게 달려든다.

연희 엄마... (엄마에게 다가가려 애를 쓰며) 엄마! 엄마!
연희엄마 연희야! 연희야!

연희가 엄마에게 다가가려는데, 전경들이 밀고 백골단이 끌어당겨서 가족들을 강제로 승합차에 나눠 태운다. 아수라장이다.

백골단에 의해 각각 다른 차에 실리는 연희와 연희엄마.

검거자 가족들을 나눠서 태운 승합차들이 대공분실 정문 앞을 떠난다.

전경들이 뒤로 물러나자, 벗겨진 신발들이 바닥에 나뒹군다.

S#79. 시골길, 일산 인근 / 오전

경찰 승합차가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다.

승합차가 멈췄다가 떠나면, 길가에 나동그라진 연희가 보인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연희.

연희가 주변을 살피면, 황량한 시골길이고 마을이 아주 멀다.

한쪽 발을 약간 절룩이며 걸어가는 연희, 신발 한 짝이 없고 맨발이다.

연희가 묵묵히 시골길을 걷는데, 후드득! 비가 쏟아진다.

S#80. 시골 슈퍼, 일산 인근 / 오전, 낮

비를 맞으며 비척비척 걸어온 연희, 낡고 허름한 ‘일산슈퍼’ 옆 공중전화 앞에 멈춰서 주머니를 뒤진다. 연희가 손을 꺼내 보면, 손바닥 위에 백 원짜리 동전 하나뿐. 수화기를 든 연희,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린다.

cut to. 시간 경과. 낮.

비를 뚫고 달려온 택시가 슈퍼 앞에 멈춘다. 택시에서 내린 잘 생긴 남학생이 우산을 들고 슈퍼 옆으로 걸어간다. 처마 밑의 연희, 벽에 등을 기대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있다.

잘 생긴 남학생이 연희 앞에 멈춰 선다.

연희, 슬며시 고개 들어 잘 생긴 남학생을 올려다본다.

잘 생긴 남학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연희의 발 옆에 새하얀 타이거 운동화를 내려놓는 잘 생긴 남학생.

연희, 운동화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S#81. 시골길, 일산 인근 / 오후

완행버스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린다.

cut to. 버스 안. 맨 뒤에 나란히 앉아있는 연희와 잘 생긴 남학생.

잘 생긴 남학생의 셔츠를 걸친 연희,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연희의 얼굴 위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노래가 흐른다.

잘 생긴 남학생,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없이 연희를 지켜본다.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던 연희,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을 흘린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연신 닦아내며 울음을 토해내는 연희.

잘 생긴 남학생이 주춤주춤 손을 뻗어 연희의 손을 슬며시 잡아준다.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한병용.

박 처장 (소리친다) 인민의 적! 악질 지주, 반동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우!!!

소스라치게 놀라는 한병용.

박 처장 고거래, 총알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바이 가슴에 말이야. 죽창을 찔렀잖어.
내래,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리, 다 봤다.

핏발 선 박 처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옆방의 비명소리인가? 당시의 처절한 목소리들이 방안 가득 들려오는 듯한데... 잔뜩 구겨진 한병용의 얼굴 위로 갑자기 탕! 총소리가 울린다.

박 처장 이보라우. 내래, 고때라도 기 나갔으면 우리 오마니, 살렸잖네? ...

공포에 험싸인 한병용의 눈가가 파르르 떴다.

박 처장 누이 목숨은 살렸을기야, 나 대신 죽었으니끼니...

이때, 환청처럼 ‘아악!’하는 어린 소녀의 비명이 들린다.
질끈 눈을 감는 박 처장의 얼굴 위로 ‘오라비~!’하는 여동생의 절규.

박 처장 지옥이 뭔지 알간? (눈을 뜨고)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소리 한번 못치는 거... 고거이 바로 지옥이다.

박 처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거칠게 숨 쉬는 한병용.
박 처장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사진을 한병용 쪽으로 속 내민다.
한병용이 보면, **S#78 대공분실 정문**에서 찍힌 연희의 사진이다!
숨이 턱 막힌 한병용, 부들부들 떨며 박 처장을 쳐다본다.

박 처장 어찌 하간?

거칠게 숨 쉬는 한병용, 기이한 소리를 내며 흐느낀다.
눈을 가늘게 뜬 박 처장의 얼굴에 살기가 스친다.

cut to. **현관**. 거침없이 현관을 나온 박 처장, 승용차에 탄다.
현관에서 뛰쳐나온 대공 형사들이 승용차와 승합차들에 올라탄다.
급하게 출발하는 차량들, 빠르게 정물을 통과한다.

S#83. 00교회 / 오전

진입로, 연희가 성경책과 성가책, 잡지를 겹쳐들고 걸어간다.
교회 정문 앞에 선 연희가 고개를 들어 보면, 높은 종탑이 있는 교회다.

cut to. 예배당 안, 연희와 김정남이 마주섰다.
연희, 잡지를 건넨다.

연희 우리 외삼촌... 고문 안 당하게 해주세요.

돌아서서 떠나는 연희.
김정남, 잡지를 손에 든 채 연희를 바라본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연희, 예배당을 나간다.

(인서트) 박 처장의 승용차와 대공 형사들의 승합차들이 도로를 질주한다.

cut to. 복도. 잡지를 손에 들고 걸어온 김정남, 목사실로 들어간다.

cut to. 목사실. 김정남이 들어서면, 주임 목사와 함세웅 신부가 있다.

김정남 신부님. 마침내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함세웅 신부가 잡지를 받아 뒤집으면, 수영복을 입은 영인이 요염한 포즈로 활짝 웃고 있는 표지의 '썸데이 서울'이다.

함세웅신부 비둘기가 헐벗었구려. 허허허.

겉겉 웃는 함세웅 신부가 잡지를 들춰서 브로마이드를 활짝 펼친다.
비키니를 입은 여인의 사진 위에 이부영이 쓴 갱지가 연이어 붙여져 있다.

함세웅신부 (주임 목사에게) 목사님 기도빨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주임목사 무릎팍이 까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세웅신부 고맙습니다. (김정남에게) 몸조심하게.

김정남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함세웅 신부, 괜찮다는 듯 김정남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간다.

cut to. 교회 마당. 예배당을 나온 함세웅 신부가 승용차에 탄다. 승용차가 정문으로 나간다.

cut to. 진입로. 정문을 나온 함세웅 신부의 승용차가 진입로를 달려간다.
반대편 차선에서 박 처장의 승용차 등이 달려온다.
박 처장의 승용차 등이 함세웅 신부의 승용차와 교차한다.
진입로를 벗어나는 함세웅 신부의 승용차.

박 처장의 승용차 등이 정문으로 줄줄이 들어간다.

cut to. **교회 마당**. 박 처장과 대공 형사들이 탄 차들이 멈춘다.

박 처장과 유 과장, 박 경정 등 대공 형사들이 차에서 내린다.

예배용 도구를 들고 예배당을 나오던 교회 직원이 박 처장 앞에 멈춘다.

교회직원1 어디서 오셨습니까?

퍽! 대공 형사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나뒹구는 교회 직원1.

문 앞의 교회 직원2, 예배용 도구를 던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대공 형사가 문을 여는데, 철컹! 철컹! 문이 잠겨서 안 열린다.

당황한 대공 형사들이 박 처장을 쳐다본다.

박 처장 부수라우.

대공 형사들, 몸으로 문을 들이받는다.

cut to. **복도**. 목사실에서 나온 김정남과 주임 목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달린다.

cut to. **예배당 안**. 교회 직원, 신도들이 쿵! 쿵! 소리가 나는 출입문으로 달려간다. 뒤늦게 예배당에 들어온 주임 목사가 합류한다.

cut to. **계단**. 김정남이 경중경중 계단을 뛰어오른다.

cut to. **예배당 안**. 황! 문이 열리고 박 처장과 대공 형사들이 들어온다.

주임 목사와 교회 직원, 신도들이 팔짱을 낀 채 통로를 막아선다.

주임 목사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직원, 신도 나가세요! / 빨리 나가!

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 처장이 가소롭다는 듯 씩 웃는다.

박 경정 짜꺼!

대공 형사들이 주임 목사 등에게 달려든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람들.

대공 형사들, 예배당을 닥치는대로 뒤지며 헤집고 다닌다.

cut to. **창 가**. 계단을 올라온 김정남, 창문으로 나가서 지붕으로 올라간다.

S#84. 명동성당 / 오전

정문, 따스한 5월의 햇살이 비추는 명동성당 전경.
전경들이 '5.18 광주영령 추모 미사' 플래카드가 붙은 정문을 막고 있다.

cut to. 성당 안.

윤상삼 기자 등 기자 20여명이 앉아있다.
길쭉한 책상이 앞에 있는데, 미사복을 입은 사제들이 들어와서 앉는다.

자막 : 1987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함세웅 신부 저희 정의구현 사제단은 5.18 7주기를 맞아, 성스러운 하느님 성전에서 구속을
불사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긴장하는 기자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중앙에 앉은 김승훈 신부가 성명서를 집어든다.

김승훈 신부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은...

(플래쉬백) 취조실.

물 속에 잠겨 버둥거리는 박종철의 흐릿한 얼굴 위로 노랫소리가 울린다. 물이 가득한 용조에 박
종철의 머리를 담근 대공 형사들. 옥조 속에 들어간 이형사가 박종철의 머리를 누른다. 항형사가
왼팔, 반형사가 오른팔을 잡았고 다리를 잡은 강형사가 애국가를 부른다.

강 형사 (애국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가 끝나자, 대공 형사들이 박종철을 일으킨다.

박종철,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인다.

책상에 눕듯이 앉아서 잡지를 뒤적이는 조 반장.

조 반장 야, 박종철. 여기 남영동이야. 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 일 안 생기거든?
(박종철을 보며) 종운이 어딴어?

대답없이 거칠게 숨만 몰아쉬는 박종철의 뒷모습.

조 반장 4절 가자.

강 형사 (애국가) 이 기상과~!

강 형사의 애국가를 신호로 박종철 머리를 다시 옥조에 담그는 대공 형사들.

강 형사 (애국가)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버둥거리면서 옥조 턱에 눌리는 박종철의 목.

물속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가는 박종철의 얼굴이 아득히 멀어져간다.

cut to. '황!' 성당 정문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기자들.

부리나케 뛰어나온 기자들이 공중전화를 향해 달린다.

공중전화는 딱 3대인데, 기자는 10여 명.

윤상삼 기자, 재빨리 수화기를 붙잡고 전화기에 동전을 넣는다.

부스를 차지하지 못한 다른 기자들이 다른 공중전화를 찾아서 뛰어간다.

뒤늦게 나온 기자 한명(카메라를 둘러멘 대공 형사1)이 눈치를 살피다가

전경들 뒤에 서있는 중대장에게 다가간다. 기자로 위장한 대공 형사1이 경찰 신분증을 중대장에게 몰래 보여주며

대공 형사1 무전기 줘. 빨리!

놀란 전경 중대장이 대공 형사1에게 무전기를 건넨다.

S#85. 취조실, 남영동 대공분실 / 오전

탁자에 얹은 한병용 앞에 설령탕이 담긴 쟁반을 내려놓는 이 형사.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가 취조실을 나간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있던 한병용, 손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는다.

울컥 울음이 터진 한병용. 꺽꺽 흐느낀다.

S#86. 00교회 / 오전

예배당 안. 분주하게 오가는 대공 형사들.

뒷짐을 진 박 처장, 제단 앞으로 걸어가서 십자가를 쳐다본다.

cut to. **창가.** 계단을 올라온 대공 형사가 창문으로 몸을 내밀어 아래 위를 살핀다.

cut to. **지붕.** 김정남이 지붕에 엎드려 몸을 감추고 있다.

cut to. **창가.** 대공 형사가 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간다.

cut to. **지붕.** 김정남이 위태롭게 지붕 위를 걷는다. 지붕 끝에 종탑이 있다.

cut to. **예배당.** 박 처장, 창가로 향한다.

유리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돼 있다.

cut to. **지붕.** 위태롭게 걷던 김정남, 종탑 코앞에서 발을 빼끗하며 미끄러진다.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김정남, 가까스로 손을 뻗어 처마를 붙잡고 매달린다.

cut to. **예배당.** 창가에 버티고 선 박 처장, 예수의 모습을 올려다본다.

예수의 머리 위쪽에 김정남의 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cut to. **지붕**. 김정남, 처미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cut to. **예배당**. 언뜻 그림자를 본 박 처장이 한 발짝 다가가는데

유 과장(off) 처장님!

박 처장이 시선을 돌리면, 무전기를 든 유 과장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미간을 살짝 찡그리는 박 처장의 얼굴, 불안감이 스친다.

cut to. **지붕**. 처마에 오른 김정남, 종탑으로 향한다.

cut to. **예배당 앞**.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처장이 성큼성큼 걸어나온다.

cut to. **종탑**. 김정남이 종 뒤에 몸을 감추고 교회 마당을 살핀다.

cut to. **교회 마당**. 대공 형사들이 줄줄이 달려 나와 차량에 탄다.
박 처장의 승용차가 빠르게 회전해서 정문으로 향한다.

cut to. **진입로**. 정문을 통과한 박처장의 승용차가 진입로 접어든다.
승용차 안, 카폰으로 통화 중인 박 처장.

박 처장 (의아하다) 대책회의를 본부장실에서 합니까? .. 알겠습니다.

카폰 수화기를 손에 쥔 박 처장, 입술을 깨문다. 뭔가 심상치 않다.

cut to.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안기부장의 승용차.
승용차 안. 카폰을 끄는 안기부장

안기부장 차 돌려. 청와대로.

안기부장의 승용차가 거침없이 1차로에 진입하고, 달려오던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그대로 유턴해서 달려가는 안기부장의 승용차.

cut to. **진입로**. 박 처장의 승용차가 진입로를 벗어나 대로에 접어든다.
승용차 안, 눈을 가늘게 뜨고 통화 중인 박 처장의 얼굴.

박 처장 ... 태우라우.

S#87. 뒤뜰, 남영동 대공분실 / 오후

양손 가득 서류를 들고 달려온 대공 형사들이 바닥에 서류들을 내던진다.

순식간에 가득 쌓이는 서류들.

대공 형사1, 서류 더미 위에 휘발유를 끼얹는다.

치익! 성냥을 켜 대공 간부1, 서류 더미에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진다.

화르륵! 불꽃이 치솟으며 활활 타오르는 서류들. 연희의 사진도 불에 탄다.

S#88. 식당 앞, 먹자거리 / 오후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식당에서 나온다.

정보국장과 건장한 치안본부 형사 8명이 사방에서 다가온다.

정보국장 어이, 황 경위! 오랜만이야?

황 형사 국장님께서... 웬 일이십니까?

정보국장이 눈짓하자, 치안본부 형사들이 일제히 달려든다.

황 형사, 반 형사, 이 형사가 붙잡힌다.

황형사 일행 니들 뭐야! / 이거 안 놔? / 내가 눈군 줄 알아? / 놔!

치안본부 형사들이 황 형사 일행을 끌고 간다.

S#89. 현관 -> 본부장실, 치안본부 / 오후

현관 근처에 승용차가 멈추고 박 처장이 내리면, 기다리고 있던 유 과장과 박 경정이 다가온다.

박 처장이 현관을 보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유 과장과 박 경정이 박 처장에게 목례를 하고 먼저 현관으로 향한다.

박 처장, 20여 미터쯤 떨어져서 걸어간다.

대기하던 기자들, 유 과장과 박 경정에게 물려든다.

기자1 과장님! 고문 경관이 다섯 명인걸 아셨습니까?

유 과장 난 모르는 일이에요!

기자2 조직적인 축소, 은폐가 있었습니까?

박 경정 그런 일 없어! 몰랐다니까!

기자들이 유 과장, 박 경정에게 몰린 사이 박 처장이 서둘러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윤상삼 기자가 박 처장 앞으로 불쑥 튀어나온다.

윤상삼기자 처장님! 감옥에 있는 경찰들한테 2억원 주셨죠?

당황하는 박 처장.

놀란 기자들이 박 처장에게 물려와 플래시를 터뜨린다.

윤상삼기자 가족 증언 확보했습니다. 은폐 조작, 인정하시죠.

윤상삼 기자를 노려보는 박 처장.
유 과장과 박 경정이 달려와서 박 처장을 감싼다.
박 처장 일행에게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진다.
다급하게 현관으로 들어가는 박 처장 일행.
기자들이 따라서 들어가려다 경찰들에게 막힌다.

cut to. **복도.** 박 처장과 유 과장, 박 경정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간다.
본부장실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들이 거수경례를 한다.
박 처장이 본부장실로 들어간다.

cut to. **본부장실.** 박 처장이 본부장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본부장실에 아무도 없다.
얼굴이 굳어진 박 처장, 고요한 본부장실을 천천히 걷는다.
본부장실을 둘러보던 박 처장의 시선이 소파 탁자 위에 놓인 서류에 멈춘다.
박 처장이 서류를 집어 들어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정사항' 문건인데
제목이 '대공수사처 처장朴 치안감 등 상급자 3명, 처벌 불가피'이다!
서류를 든 박 처장의 손이 파르르 떨린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박 처장의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

S#90. 신문 몽타주 / 오후

윤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자막 : 1987년 5월 25일 오후 4시

화면 가득 신문이 튀어나온다. '쫄 대통령, 은폐 관련자 처벌 강력지시'.
다른 신문기사는 '2억원 통장 수사비서 빼 - 공금유용 적용될 듯'.
마지막 신문기사는 '朴 치안감 등 상급자 3명 구속 결정'. S#89에서 찍힌 박 처장과 유 과장, 박 경정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S#91. 처장실, 남영동 대공분실 / 밤

박 처장, 캐비닛 앞에서 거울을 보며 S#2 훈장을 가슴에 꽂는다.
리볼버 권총을 꺼내서 총알을 장전하는 박 처장.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유 과장과 박 경정 등 대공형사들이 소파에 앉아 권총에 총알을 장전한다. 장전을 마친 유 과장이 박 처장에게 다가간다.

유 과장 준비됐습니다.

장전한 권총을 주머니에 넣은 박 처장,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간다.
유 과장과 박 경정 등 대공형사들이 따라간다.

S#92. 올림픽아 호텔 / 밤

호텔 현관 앞에 검은 양복들이 포진해 있다. 삼엄하다.

박 처장의 승용차가 다가오자, 검은 양복들이 권총을 빼들고 경계한다.
박 처장의 승용차가 멈추자, 검은 양복들이 권총을 겨누며 차를 둘러싼다.
검은 양복 한명이 천천히 다가가서 뒷문을 열자, 대공 간부2가 앉아있다.

대공간부2 아따메~ 욱 쪼까 보시는구마잉... 밥들은 자셨소?

어리둥절한 표정의 검은 양복들.

cut to. **조리실**. 식사 준비를 하는 요리사들 사이로 박 처장과 유 과장, 박 경정. 그리고 대공 형사들이 거침없이 걸어간다.

cut to. **복도**. 회의실 앞에 검은 양복 2명이 보초를 서는데, 박 처장이 홀로 뚜벅뚜벅 걸어온다. 검은 양복들이 권총을 빼들고 “거기서!” 하며 박 처장에게 다가가는데, 박 처장은 멈추지 않는다. 검은 양복들이 복도가 교차하는 곳에 집입하는 순간, 퍽! 퍼벅! 복도에 숨어있던 대공 형사들이 덮쳐서 검은 양복들을 순식간에 제압한다.

박 처장, 바닥에 널브러진 채 무장해제를 당하는 검은 양복들 사이를 거침없이 통과해서 객실 앞에 멈춘다.

박 처장이 문을 잡아당기는데 열리지 않는다.

탕! 주저없이 자물쇠를 향해 권총을 쏘는 박 처장.

cut to. **객실**. 박 처장과 유 과장, 박 경정이 객실로 들어선다.

차갑게 돌아보는 안기부장 너머로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장관들.

박 처장이 안기부장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 순간.

검은양복(off) 총 버려!

방과 화장실에 숨어있던 검은 양복들이 M16 소총을 겨누며 나온다.

당황하는 유 과장과 박 경정.

소총을 겨누는 검은 양복들이 박 처장 일행을 순식간에 둘러싼다.

cut to. **복도**. 근처 객실에서 튀어나온 검은 양복들이 대공 형사들에게 소총을 겨눈다. 대공 형사들, 권총을 버리고 양손을 치켜든다.

cut to. **다시 객실**. 검은 양복들과 박 처장 일행의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안기부장, 의자에서 일어나 검은 양복들에게 기다리라는 제스처와 함께 박 처장에게 다가온다.

안기부장 (다가가며) 아이고... 박 처장. 경비가 삼엄하죠? 시국이 어수선하니깐, 객기 부리는 놈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박 처장 내래 평생을 ... (총 치켜세우며) 평생을!!!

안기부장 알죠, 알아...

(총구 앞으로 바짝 다가가며) ...애국자지, 진짜 애국자!

박 처장 ...

안기부장 당신이나 나나 고생 많았잖아요?!
(총구를 비켜서서 박 처장의 훈장을 매만지며) 각하게 부담주지 말고 조용히 떠날
시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박 처장의 눈빛이 흔들리는데... 순식간에 다가와 박 처장의 권총을 낚아채고 팔을 꺾는 검은 양
복. 그 모습을 보고 힘없이 제압당하는 유 과장과 박 경정.

안기부장이 돌아서서 자리로 향한다.

박 처장의 모자가 벗겨져서 바닥을 뒹굴고, 바닥에 얼굴을 박은 박 처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다. 박 처장,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안기부장의 모습을 허망한 눈으로 바라본다.

S#93. 현관 앞, 영등포 교도소 / 오후

호송버스가 현관 앞에 멈추고, 수인복을 입은 유 과장과 박 경정이 내린다.

잠시 후, 포승에 묶인 박 처장이 내린다.

자막 : 1987년 5월 29일 오후 3시

현관 앞에 멈춰 선 박 처장이 교도소를 훑어보다가 시선을 멈춘다.

현관 옆에 보안계장이 서 있다.

박 처장이 보안계장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보안계장이 박 처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응시한다.

교도소 현관 앞에 마주선 박 처장과 보안계장. 바람이 분다.

S#94. 편집국, 동아일보 / 오후

편집국이 북새통이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밖에서는 시위대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
소리와 비명, 최루탄 터지는 소리 등이 들린다.

윤상삼기자 부장! 전국이 전쟁입니다. 다 카바하기 어렵겠는데요?

사회부장 주요 대학하고, 광장만 카바하라 그래!

사회부장이 사진부로 가면, 사진기자들이 방독면, 헬멧 등을 챙기로 있다.

사회부장 6시에 교회, 사찰, 성당 종치고, 차량들 경적 울린다니까, 그림 확실하게 만들어 와!
사진기자들 예!

S#95. 연희의 집, 동네슈퍼 / 오후

안방. 연희엄마, 낮이 나간 얼굴로 구석에 앉아있다.

cut to. 슈퍼 안. 연희가 종이박스에서 양초를 꺼내 선반에 진열한다.

멀리서 평, 퍼빙! 평! 빠바바방!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신문배달부 석간이요!

신문배달부가 평상에 석간신문 뭉치를 내려놓고 떠난다.
신문에 관심이 없는 연희, 양초들을 계속 진열하다가 문득 평상을 쳐다본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연희, 양초를 손에 쥔 채 일어선다.
평상으로 다가온 연희가 신문을 보는데, 거꾸로 놓여서 명확히 알 수 없다.
신문을 주시하며 평상을 돌아가는 연희.
신문 1면이 똑바로 보이며 제목과 사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루탄 맞은 연세대생 死境'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 흘리며 쓰러진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안겨
있는 사진이 있다.
손에 든 양초를 떨어뜨린 연희가 신문을 집어 들어서 사진을 자세히 살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학생은 '잘 생긴 남학생(이한열)'이다!

S#96. 정문, 연세대학교 / 오후

대학생들, 정문으로 향한다. 플래카드 문구는 '6.10 대회 연세인 출정식'.

자막 :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대학생들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대학생들, 정문을 통과한다. 대열 앞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YONSEI' 글씨가 박힌 티셔츠를
입은 잘 생긴 남학생(이한열)이 있다.

cut to. 정문 건너편.

전경들, 최루탄 발사기를 45도로 조준하더니, 퍼버병!

cut to. 정문.

SY-44 최루탄이 대학생들 머리 위에서 터진다.

최루탄 연기가 대학생들을 뒤덮고 대학생들이 몸을 돌려 정문 안으로 후퇴한다.

기침을 하던 이한열이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린다.

cut to. 정문 건너편.

전경들, 최루탄 발사기를 직격으로 바꿔서 '퍼버병!'

cut to. 정문.

SY-44 직격탄이 대학생들에게 날아든다. 벽에 맞아 터지는 직격탄, 땅에 튕기는 직격탄 등.

정문으로 들어가는 이한열의 뒷머리를 향해 SY-44 직격탄이 날아온다.

퍽! 직격탄이 이한열의 뒷머리를 강타하고 이한열이 쓰러진다.

'한열아~ 이한열!'을 외치는 누군가의 애타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이한열, 희뿌연 최루탄 연기 속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이한열의 왼발에서 벗겨진 타이거 운동화가 저만치 놓여있다.

영금영금 기어간 이한열이 운동화를 집으려는데, 피가 똑똑 떨어져서 새하얀 운동화를 벌겍게
적신다.

어리둥절한 이한열이 손으로 뒷머리를 만져서 보면, 손바닥이 피범벅!
마스크를 쓴 학생(이종창)이 이한열을 발견하고 달려온다.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이한열이 운동화를 집으려는 순간,
이종창이 이한열을 부축해서 일으킨다.
뒷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이한열의 뺨을 적신다.
이한열을 꺼안은 이종창이 정문 안으로 뒷걸음질 친다.
몽롱한 눈빛의 이한열, 운동화를 집으려 손을 뻗는다.
이한열의 손이 연거푸 허공을 움켜쥐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운동화가 조금씩 멀어진다.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는 이한열.

S#97. 연희의 집, 동네슈퍼 / 오후

사진을 보며 울컥 울음을 터뜨리는 연희.
이때, 성당과 교회, 사찰들의 다양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린다.
하얀 타이거 운동화를 신은 연희, 골목을 달려간다.

S#98. 몽타주 / 오후

눈물을 흘리며 달리는 연희. 수십여개의 다양한 종소리와 경적음이 울린다.

cut to. 도로. 사거리에 멈춰선 자동차들, 경적을 울린다.
태극기를 창밖으로 내밀어서 흔드는 택시들.
택시를 스친 연희, 자동차 경적 소리로 가득한 도로를 가로지른다.

cut to. 거리. 시위대(넥타이부대)들이 이한열 사진이 실린 신문을 들고 거리를 점령했다.
애국가부르는 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빌딩에서 던진 확장지와 서류들이 휘날린다.

cut to. 골목. 연희, 행진하는 시위대를 빠르게 지나쳐서 달려간다.

cut to. 광장. 골목에서 달려온 연희가 멈춰 선다. 사람들로 길이 막혔다.
연희가 잡던 카메라가 떠오르면, 드넓은 서울시청 광장에 가득한 사람들.
60여만명의 군중들이 외치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진다.
광장을 메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며 서서히 화면 암전.
노래 ‘그날이 오면’ 전주가 흐른다.

F.I. 자막

-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이 발표됐다.
- 최루탄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된 이한열은 7월 5일에 사망했고 7월 7일에 열린 장례식 노제에 100만여 명이 운집했다.

이한열의 서울시청 앞 광장 노제 사진에 이어, 복원된 이한열의 타이거 운동화 사진,
6.10항쟁 당시의 자료화면들과 실제 인물들의 육성 등이 이어지고

